

CONTENTS

- 06 **누구보다 뜨거웠던 우리의 겨울을 기록하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_ 이다영
- 38 **다른 땅에서 같은 꿈을 꾸는 우리**
경상대학 경영학부 _ 강민서
- 48 **따갈로그어 그리고 스마일**
목원대학 경찰법학과 _ 이지인
- 58 **농산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네이처링크**
경상대학 경영학부 _ 배근영
- 72 **익팅, 타워빌에 다시 해피바이러스를**
경상대학 경영학부 _ 이원정
- 80 **모든 것을 삼켜버린 파도를 넘어 새로운 항해를 떠나기까지**
사범대학 교육학과 _ 박시원
- 88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농장 방문기**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_ 유승연
- 96 **산후안 초등학교 어린이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_ 나진솔
- 112 **필리핀 필드트립**
경상대학 무역학과 _ 이경화
- 122 **사단법인 캠프의 지속가능성**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_ 서호연
- 132 **열두명의 소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_ 백민경
- 150 **우리들의 활동, 책 속 사진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_ 김소정

꿈을 향한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에세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우리의 겨울을 기록합니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_ 이다영

2023년 1월 15일 _ 필리핀의 첫인상

대전에서 마닐라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12시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마주한 것은 설렘도 피로감도 아닌 더위였다. 숨을 크게 내쉬면 오히려 속이 답답해지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진득해지는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하나둘 입었던 외투를 벗고, 마스크를 벗어 마스크 끈으로 머리를 묶었다. 가져온 책자로 서로 부채질을 해주며 더위를 식혔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은 꽤 멀었다. 창밖으로 필리핀 밤거리를 마주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전혀 기쁘지도 설레지도 않았다. 외국에 왔는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일정표를 보고 또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바빴다.

2023년 1월 16일 _ 필리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날, 숙소가 있는 케손 시티부터 캠프가 있는 산호세델몬테시까지 버스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민서와 나는 거의 창문과 한 몸이 되다시피 창밖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라 볼 수 없었던 현지 풍경을 아침이 되어서야 눈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제멋대로 자란 우거진 풀, 빼곡히 들어선 낡은 건물과 형형색색의 작은 점포, 그 앞을 지나는 오토바이와 창문 넘어 들려오는 경적. 이런 게 동남아시아구나.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자연과 사람과 오토바이가 한데 어우러져 복잡하게 돌아가는 아침 풍경에, 필리핀에 왔다는 게 번뜩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

산호세델몬테시에 속한 '타워빌'이라는 마을까지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었기에 '트라이시클'을 타고 이동했다.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해 마차 안에 2명, 오토바이 뒷좌석에 2명. 운전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했다. 오토바이 뒷좌석 끝자리에 앉은 나는 숨을 들이실 때마다 밀려오는 매연 냄새를 맡으며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오토바이에 달린 손잡이 하나에 몸을 맡기자니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덜컹거리는 탑승감이 짜릿해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렇게 정신없이 마을을 지나치면서도 그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림을 느낄 수 있었다. 안 그래도 처음 보는



외국인 열댓 명이 혼하디혼한 교통수단을 타면서 소리를 꺽꺽 질러 다니 그만큼 신기한 광경도 없을 테지.

캠핑에 도착하고 필드트립에 앞서 전반적인 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다. 그 일정이란 우리가 사전 교육 당시 배웠던 이론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실습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간사님이 활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사전 교육으로 배운 내용과 맞물려 내 눈 앞에 펼쳐지고, 후덥지근한 더위가 현장감을 더해주어 왠지 모를 벅찬 마음이 들었다. 우리의 여정을 비로소 시작하는 순간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

#안녕 타워빌

캠핑이 걸어온 역사를 공부하기 전, 사업을 진행한 현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했다. 타워빌을 한 바퀴 산책하며 사업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폈다.

골목마다 작은 집이 빈틈없이 줄지어 있었고, 큰 개가 집을 지켰다. 마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화초를 키우는 집이 많아서 이리저리 초록색이 보였다. 과자를 매달아 놓은 구멍가게는 자연스레 골목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을 품은 공간이었다. 뻥뻥한 집 사이사이에 공용 시설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 학교는 담장이 없는 공터가 있는 곳, 시장은 다른 골목에 비해 사람이 많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어렵듯이 체감했다.



타워빌을 둘러보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낯선 외국인들이 딱하니 마을을 산책하는데도 먼저 다가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고, “헬로 뽀!(Hello po!)”라고 인사를 건네면 고운 미소로 반겨 주셨다.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와중에도 인사는 멈추질 않았고, 어떤 이는 대화하기 위해 오토바이 속도를 늦췄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면 몸을 배배 꼬며 수줍어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는 “헬로뽀!”라고 인사하면 연예인을 본 것처럼 “까악”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환영에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작은 빈민 지역에 드나드는 외국인이 많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그저 처음 온 방문객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나?’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캠프가 타워빌에서 이룬 반짝이는 성과를 보면서 홀연히 사라졌다.



#나나이는 타워빌의 주인공

점심 식사 후, 익팅 나나이 네 분을 만나 당신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네 분 모두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타워빌로 강제 이주해 온 분이셨다. 나나이분들이 타워빌에 이주해 올 당시에는 식수, 전기, 일자리와 같은 시스템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곳에 이철용 대표님과 캠프가 들어와 마을을 살리기 위한 여러 시도 끝에 지금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과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나나이들의 열정과 리더십까지 더해 일어난 시너지로 그들은 타워빌을 가꾸었다. “가정이 위기를 맞았을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력했던 내가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위해 힘 쓸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나나이는 전했다.

한국에 비해 여성의 독립적인 지위와 사회생활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맞서 싸우며 가정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력하는 나나이 모습이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나나이가 전해 주는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그 속에 담긴 조건 없는 사랑이 떠올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 입장에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 사람이 또는 한 기업이 사업을 착수했을 때 그 지역과 현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사업 현장을 잘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마일 타워빌

학생 4명, 선생님 1명, 캠프 직원 1명, 나나이 3명이 한 조로 나나이 댁에 방문하였다. 가정을 직접 들여다보며 현지 주민과 현장을 깊이 헤아리고자 함이다.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캠프 지부와 비교적 가까운 언덕 위에 있었다. 끝이 갈라진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개 한 마리가 한껏 소리를 높여 짖어 댔다. 바닥엔 임시로 쓸 만한 얇은 파란색 벽지가 조각조각 깔렸고, 바닥을 제외한 다른 벽면은 그저 회색 시멘트벽이었다. 집 내부는 거실과 부엌으로 나누었다. 이불을 줄에 매달고 이를 커튼 삼아 공간을 분리해 하나의 방으로 사용했다.

작은 집에 나나이의 어머니, 나나이 형제자매, 조카, 나나이 자녀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이 살았다. 나나이께서는 자녀 3명과 조카 2명을 돌보고 계셨다. 나나이 오빠 부부께서 돌아가셔서 조카 2명도 도맡아 양육하시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집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가 자꾸만 짖어 대며 방해꾼을 자처했다. 서로 목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짖는 소리가 커지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개를 다그쳤다. 간사님께서 웃음을 터뜨리며 통역해주시길,

“니가 그렇게 짖어 대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고는 부끄러운 듯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에 다 함께 큰 웃음을 터뜨렸다.

두 번째 나나이 택을 찾아가는 길에는 동네 꼬마 아이들이 많았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면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남은 한 손으로는 수줍게 인사를 받아주더니, 이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게 싫진 않았던 모양이다. 나나이 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창문 넘어 요리조리 구경하면서 기다렸다가, 다른 나나이 택으로 가는 길을 다시 졸졸 따라왔다. 그렇게



우리는 타워빌 구석구석을 누비는 피리 부는 소녀가 되었다.

양옆에 집이 빼곡히 늘어진 골목에서 한눈에 보이는 화사한 초록색 집이 두 번째 나나이 택이었다. 조심스럽게 집안으로 들어서니 외벽과 같은 초록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다. 신발장과 마주 보는 벽에는 가족사진과 나나이 자녀의 졸업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두 번째 나나이께서는 슬하에 자녀가 둘이셨고, 나나이 부부와 자녀 둘까지 네 명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집이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두 번째 나나이 택을 보고는 세 번째 나나이께서 “우리 집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셨다.

첫째 아들이 옛된 얼굴로 우리에게 “헬로 뽀!”라며 인사를 건네었다. 나나이께서 “아들이 스무 살이고, IT분야를 공부한다.”라고 소개하실 때, 자연스럽게 학교 새내기처럼 귀엽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진솔이는 “이야 공대 새내기~”라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인절미색 고양이 세 마리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족을 보며 아늑한 가정의 온기를 느꼈다.

세 번째 나나이 덕은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있었기에 조금 걸어가야만 했다. 못 본 새 나나이의 친해진 경화는 딸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친밀하게 나나이의 팔짱을 낀 채 저만치 앞서 걸어갔다. 이번 덕은 경화와 나나이를 따라 굽이진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내리막길을 내려가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선 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안으로 발을 옮겨 들어가니 집이 지저분할까 걱정하셨던 게 무색할 만큼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주했다. 세 번째 나나에게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7년째 홀로 6남매를 키우고 계셨다. 거기다 손자까지 두고 있으니 나나이는 정말 대단한 분임이 틀림없었다. 나나에게 ‘SUPER MOM’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활짝 웃으며 좋아하셨다.

거실 한구석에 세워 둔 박스 너머로 얼마 전 새끼를 낳은 예민한 어미 개가 우리를 경계하며 짖었다. 그 앞에서 나나이 손자 JK가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눈을 부릅뜨고 개를 혼내더니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박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땅에 닿지도



않는 발을 대롱대롱 내놓고 다리를 억지로 꼬며 형아 행세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글을 쓰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번질 만큼 치명적이었다.

소파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기도 전에 간사님께서 “노래 한 곡 하실래요?”라는 엄청난 미끼를 던지셨다. 진솔이는 “네, 아니오.”라는 대답도 없이 “블랙핑크로 가자. 애들아.”라며 덤석 미끼를 물었다. 이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흐름을 따라갈 새도 없이 이미 기계 전원은 켜져 있었다. 2NE1의 ‘FIRE’라는 노래가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는 간사님의 물음에 진솔이가 OK 사인을 보냈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전주가 흘러나오자 진솔이가 힘차게 스텝을 밟고 나와 춤을 추며 무대를 장악했다. 누구 하나 끼어들 틈도 없이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를 보이며 날아다니는 진솔이를 본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후렴구에는 시원 언니까



지 가세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온 집안에 웃음이 번져 그야말로 웃음 바다였다. 노래가 끝난 후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무새를 정리하며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주어진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용기에 은은한 후광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센터장님께서서는 “현지 주민에게 아무렇지 않게 스며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하셨다.

가정 방문이 모두 끝나고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익당 봉제센터에 계셨던 나나이 한 분을 만났다. 마을을 오가며 인사할 수 있는 주민이 한 명 생겼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하루도 채 안 지났는데, 타워빌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람 사는 게 이런 구나 싶어!”라고 말하는 시원 언니의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했다. 타워빌에 자연스레 스며든 우리들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말이었다.

2023년 1월 17일 _ 손에 손잡고

타워빌에서의 두 번째 아침, 우리는 ‘현지조사방법론’ 사전 교육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과 U.P 대학생 5명을 만났다.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교수님 진행으로 '닥터 짹짹'이라는 게임을 함께 했다. 이 게임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닥터 역할이 중요한 게임이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진수 선생님과 윤형 선생님께서 맡았다. 게임을 시작하니 머뭇거리며 참여하려 나오시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순식간에, 게임에 몰입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덩달아 신이 났다. 아무렇게 엉켜 있는 우리를 요리조리



둘러보고, 팔과 다리를 들었다 놔다 하며 구조를 파악하고, 때로는 “대체 어찌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혼잣말도 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 즐거움이 배가 되어 엉켜 있는 모두가 게임에 더욱 열중했다.

닥터가 엉킨 원을 푸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불편하게 꼬인 자세를 견뎌야만 했다. 오랜 시간 손을 붙잡고 있으니 땀이 나면서 자꾸만 손이 미끄러졌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부여잡는 우리를 보며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끈끈함을 느꼈다.

#동반 성장이란

게임이 끝나고, 45분 남짓한 시간 동안 U.P 학생들이 준비한 ‘익팅과 그들의 경험’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우리가 만난 U.P 학생은 모두 익팅 봉제센터에서 현장 실습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린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여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끔 격려하는 ‘empowering process’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캠프 측에서 일방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봉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각각 하나의 온전한 조직으로 자립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할 것이었다. 각 조직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다.

우리가 U.P 학생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던 중, 누군가 “익팅에서 실습하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5명 모두가 질문에 대답해 주었지만, 나이젤이 해주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안전지대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곳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무궁무진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U.P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끝난 후, 나는 가만히 앉아 나이젤이 했던 말을 곰곰이 되풀이해 보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도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첫 단추를 끼우기 두려워하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동시에 필리핀에서 하루하루 경험치를 쌓으며 천천히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상황에 들어맞는



말이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비슷한 꿈을 꾸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서로의 생각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자극하고 성장시켜 줄 촉진제라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꿈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갔다.

#아쉬운 작별

타워빌을 떠나기 전, 나나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봉제센터로 향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나나이 옆으로 다가가 에코백 마감 처리 작업을 함께하며 말동무를 해드렸다. 센터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며 “그렇지~ 그렇지~”하고 추임새를 넣어 주셨다. 나나이께서 정겨운 어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춰~”하며 추임새를 따라 하

했다. 뜻밖의 한국어를 들으니 깜짝 놀람과 동시에 순간을 포착하고 따라 하시는 나나이가 귀여워서 함께 박장대소했다. 한바탕 웃은 후, 나나에게 “그렇지”는 “That's right”를 의미한다고 설명해드리던 참이었다. 경화가 나나에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미 마간다?(Me pretty?)”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나나에게서 웃으시며 “그러쥬~~”라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노뽀(No po!)~~~”라고 하며 장난을 더했다.

서투른 영어로 장난기 가득한 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틀 동안 나나 이들의 과거 경험을 들으며 마치 내 일처럼 몰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가정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공유하며 어느새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나에게서 보여주시는 환한 미소에 아쉬운 마음을 꼭 누르고 밝은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타워빌은 우리를 물들이는 마을이었다. 마을을 제집처럼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닭, 차와 오토바이가 무자비하게 달리는 위험한 길가, 코를 찡그리게 하는 매연 냄새 등을 겪으면서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타워빌에 한껏 정들어 있는 우리가 보였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게, 타워빌은 그렇게 아주 매서운 속도로 우리를 적시고 말았다.

2023년 1월 18일 _ 자연이 환영해주는 곳

필리핀에 온 뒤로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이른 아침 버스에서 눈을 붙이자마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연스레 떠지는 눈에 창밖을 바라보니 사방이 온통 푸르른 자연의 향연이었다.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적었다면 더 예뻐서 테지만, 끝없이 넓게 펼쳐진 초록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옥수수과 벼가 수평선을 이루던 딸

락은 자연을 가득 담은 곳이었다.

사업지에 도착하니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무지개색 풍차가 끼익끼익 돌아가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사업지 한쪽에 마련한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딸락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익팅 사업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농업 시스템에 관한 내용에 달아나는 집중력을 간신히 부여잡았다. 매사에 열정 가득한 근영이는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딸락에 오니 배가 된 집중력으로 필기했다. 몇몇 친구의 공허한 눈빛에 동질감을 느끼던 찰나, 때마침 우리를 구원해 줄 간식이 등장한 덕분에 집중력을 되찾고 대표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 PDM 사전 교육 당시, 3일간 공부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셨다. 빼놓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던 사전 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새싹이 자라나는 마을

사업지에서 짧은 시간을 보낸 후, 교육봉사를 위해 산호세시 산후안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제법 큰 표지판에 쓰여 있는 “WELCOME SAN JUAN”이라는 문구에 그만 마음이 들떠버린 우리였다. 평소보다 들고 가야 할 준비물은 많았지만,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기분으로 얼굴에 미소를 한가득 담았다.

노란색과 파란색 울타리로 둘러싸인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발랄한 연둣빛 학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만 진행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수업에 앞서 야외무대에서 우리 소개를 한 후 <아기 상어> 동



요를 울동과 함께 부르기로 하였다. 울동 선두로 나선 승연이와 진솔이는 막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울동을 연습했다. 나와 같은 조였던 호연, 시원, 민서는 모여 우리 조를 소개할 말을 정했고, 다른 조도 마찬가지로였다.

헐레벌떡 준비하다 보니 벌써 아이들이 학년별로 줄을 지어 무대 앞으로 모였다. 부끄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니 보답이라도 하는 듯 뜨거운 아이들의 반응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도 얼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벌써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각자 학년에 맞게 나누어 준비한 수업을 진행했다. 1학년을 담당하는 나는 생각보다 훨씬 작은 아이들을 보고는 쉽지 않은 2시간



이 되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수업이 계획했던 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은 눈치도 없이 빠르게 흘렀다.

정신없이 2시간을 보내고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전부였다.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교실을 돌아다니며 딱지 접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왔다. 잘 못해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끝에는 항상 하이파이브로 마무리했다. 아이들은 서툴게 딱지를 접고서 자랑하듯 딱지 보여주었다. 칭찬과 하이파이브를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딱지를 바르게 접어주기 위해 내 손이 아이와 딱지를 향할 때는 얼른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 손도 움짚음짚혔다.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칭찬과 하이파이브를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아는 따갈로그어가 '마갈링(잘했어)'과 '마간다(예쁘다)' 밖에 없었기에 끊임없이 입 밖으로 꺼내며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려 애썼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 밖으로 나가 아이들 점심 배식을 도왔





다. 신기하면서도 반가워하는 아이들 얼굴에 힘든 줄도 모르고 설 새 없이 일했다. 한참 배식하다가 몇몇 친구가 지나갈 때는 선생님께서 “more”를 강하게 외치셨다. 배식을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더 심한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설명해 주셨다.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짧은 시간 잠시 머물렀지만,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 준 산후셰시 속 작은 마을 산후안, 그곳에 있는 산후안 초등학교. 산후안 마을은 내게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거리에 떠도는 따뜻한 정과 온기도, 친절한 사람들도 좋았다. 굳이 어디에 가지 않아도 길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 집을 구경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자주 마주치고, 기억 속 잔상으로 남아 작은 추억으로 피어난다. 또 그렇게 길을 걷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반짝이는 눈망울이 말을 걸어오고, 알고 있는 따갈로그어를 건네면 수줍은 미소로 대답한다. 짧은 시간으로만 마무리하기엔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한 마을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또 다른 이별을 맞이했다.

#드디어 자유시간

3일간 설 틈 없이 달려온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꿀 같은 자유 시간이었다. 숙소 앞에 있는 SM City Mall에서, 더 정확히는 쇼핑몰 내부에 있는 마트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쇼핑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는 마트 안을 누비며 순식간에 쇼핑 카트를 채웠다. 특히 민경 언니의 철저한 필리핀 사전 조사로 유명하다는 제품은 두세 개씩 카트에 담았다. 물론 정말 궁금한 물건으로만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그런데도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유명하다는데?”라고 한마디 하면 모두가 시선을 돌렸다. 물건을 들고 오면서 다른 친구가 가져온 개수가 더 많을 때는 이걸로 부족한가 싶어 “나도 더 살까...?”하고 몇 개를 더 담았다. 그렇게 붙어날 대로 붙어날 쇼핑 카트를 끌고 계산대 앞에 섰다.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같은 줄에 있던 경화와 진솔이는 자꾸만 고개를 가우똥거렸다. 우리 줄 제일 앞에서 있는 진솔이가 혼자 골똘히 고민

을 하더니 굳이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을 조심스레 카트에서 꺼내며 몇 쪽은 웃음을 보였다. 고민하는 표정과 행동을 지켜보던 소정 언니와 나는 뒤에서 킁킁 소리를 내며 웃었다. 뒤에 섰던 경화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는 조용히 자신의 카트를 바라보다 물건 몇 개를 집어 카트에서 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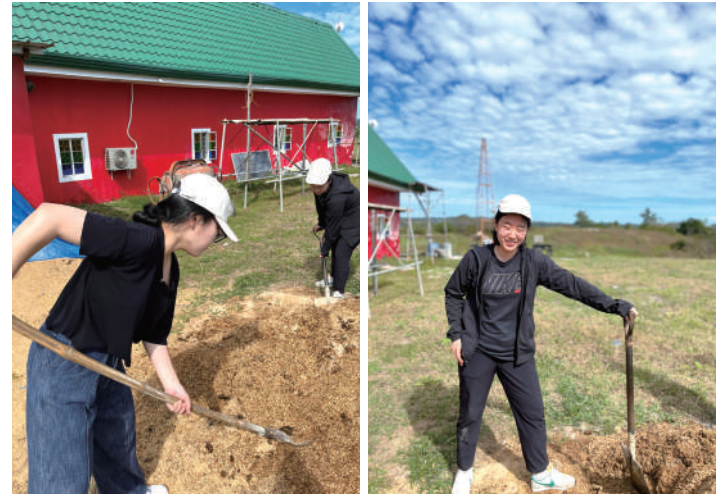
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도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가만

히 살펴보니 계산대 직원이 바코드를 인식하고, 정산하고,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일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었다. 바코드 인식과 정산은 직원이,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일은 손님이 직접 하는 한국 마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에 우리는 속이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인 언니는 약자 우선 줄인지 모른 채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는데 안 된다는 직원 말에 새로 줄을 서는 대참사도 발생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우리가 선 줄이 맞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수차례 다시 확인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계산대 직원이 바코드를 찍은 후 직접 담아 포장해주려고 했다. 우리는 재빨리 셀프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종이백을 받아 알아서 빠르게 척척 담았다. 마트를 나온 후,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뻗속부터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짐한 종이백을 보며, 그리고 약속한 ‘밤 파티’를 생각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가라앉혔다.

#스쳐 지나간 모든 순간은 추억이 되어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약속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한 방에 모여 들었다. 마트에서 사 온 필리핀 맥주와 음료,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먹으며 3일 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을 만끽했다. 침대 위에 등글게 모여 앉아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보따리를 활짝 펼쳤다. 어느 누가 무슨 주제로 말해야 할까 고민할 새도 없이 활동 중에 있던 여러 일화를 풀어내느라고 바빴다.

그중에서도 필드트립을 오기 전 하나의 관문이었던 센터장님과의 영어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다. 본인 영어 실력에 충격 먹은 것 같다는 등, 못 알아들어도 이해하는 척했다는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던 중에 시원 언니의 한마디에 모두가 넉 다운, K.O. 패를 선언하고 말았다. 시원 언니가 면접 당시 센터장님 앞에서 입 소리로 거문고 연주를 들려드렸다는 것이 아닌가. 폭탄 발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지러지게 웃었다. 시원 언니는 아랑곳 않고 당혹스러웠던 감정을 풀어내기 바빴다. 원정이는 “언니 장기 자랑해서 뽀뽀한 거면 반칙이지!”라는 농담을 던져, 우리가 한 번 더 웃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한국에 온 지금까지 대화를 하다가도 무턱대고 계이름을 읊으며 거문고를 치는 시늉을 하면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도, 참여하지 않던 사람도 빵 터지는 그야말로 ‘웃음 벨’이 되었다. 그렇게 천천히 우리만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쌓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2023년 1월19일 _ 몸으로 배우는 ‘지속 가능한 사업’

딸락에서의 두 번째 아침, 캠프가 사업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코코넛 껍질, 코코넛 톱밥, 미강을 섞어 발효시키는 작업, 주먹밥을 땅에서 발효시킨 후 흑설탕을 버무리고 밀폐 용기에 넣어 다시 발효시키는 작업, 쌀알을 골라내는 작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실제 딸락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실습했다.

특히 띄약별이 쪼는 더운 날씨에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실습을 이어가는 삼질 팀의 모습이 멋있어서 열린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무턱대고 카메라를 들이밀어도 마다한 적 없이 웃으며 기다려주는 모습에 또 한 번 진한 감동을 받았다.



#영덩이가 희생한 덕분에

떨락 깊은 곳에 있는 양계장과 콩을 재배하는 밭을 보기 위해 목적지까지 걸어 올라가려던 계획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대표님 차에 모든 인원이 타고 빠르게 움직이기로 했다. 차 내부에 운전자 포함 4명이, 나머지는 모두 뺑 뚱린 트렁크에 탑승했다. 트렁크에서도 차 앞머리와 가장 가까운 4명은 서서, 나머지는 빈틈없이 모여 앉아 이동했다.

트렁크에 타고 가는 것이 신나는 오프로드 체험인 줄로만 알았던 건 우리의 오산이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비포장길’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비포장 상태였다. 가장 무난한 흙길을 시작으로 얇은 냇가를 건너는가 하면, 자갈돌이 깔린 길을 꾸역꾸역 지나가기도 했다. 트렁크에 앉았던 사람들은 안 그래도 울퉁불퉁한 트렁크 바닥인데 길까지 울퉁불퉁하니 영덩이뼈가 남아나질 않겠다며 아우성을 질렀다. 언덕을 오르는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차게 액셀을 밟아야 무거운 차가 움직일 수 있었기에 부웅 하고 탄력을 받아 더욱 덜컹거렸다.

콩 농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현지 농민들과 협력하여 토지는 농민이 제공하고 콩 농사를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캠프가 지원하며 성공적인 콩 농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옥수수와 쌀농사가 주를 이루는 떨락에 콩과 같은 새로운 작물을 들여오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작물에 맞는 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건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으리라. 그런데도 위험 부담 있는 일을 이렇게 큰 규모의 토지에서 진행한다는 것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양계장에서 닭과 친해지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도착 후 간단한 설명만 듣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양계장에서도 실습하며 사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하늘을 보니 필리핀에 온 이후 가장 좋은 날씨에 아쉬운 마음은 금세 잊어버렸다.

다시 이동할 시간, 센터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렁크에 올라타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별거 아닌데 엄살을 피운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차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덜컹거림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하~ 이거 자리 바뀌야 되겠는 걸~”이라는 센터장님 말씀에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맑게 갠 하늘과 온통 푸르른 자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할 나위 없이 예쁘게 보였다.



#머지않아 활동가로 만나는 날이 올 수 있길

지부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했다. 지부장님께서 견고 계신 길이 곧 우리가 관심을 둔 분야였기에 대화도 진로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에게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고 물으시는 말에, 여태까지는 혼자 생각해 왔던 미래를 얘기했다. 지부장님께서서는 다정히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고민해 주셨다.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던 방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해 주셨다.

지부장님과 대화를 통해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우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발을 디더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이루고 계신 지부장님께서 해주시는 진심 어린 응원이 위로가 되어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다. 자칫하면 맺힌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천장을 보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숨을 고르기도 하며 깊어지는 감정을 껍뻍 눌렀다.

마음이 빈틈없이 따뜻해지는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여정을 마무리하며

나는 한 번도 내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확신이 필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일주일이 나의 꿈을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와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과 개발협력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한발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자극받고 스스로 성찰하며 생각을 정립해가는 것.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확고해진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내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 열정과 관심을 마음 한쪽에 묻어두고 다른 길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확인했다.

꿈을 찾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잘 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나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흔들림이 많을수록 나만의 방향성이 짙어진다는 걸 알기에 더 흔들려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웠듯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안전지대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필리핀 국립대 학생들과의 만남 _

다른 평에서
같은 꿈을 꾸는 우리

경상대학 경영학부 _ 강민서

어색한 웃음만이 가득했던 첫 만남

타워빌 라운딩과 익팅 가정 방문으로 필드트립 첫날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맑은 날씨와 함께 둘째 날이 찾아왔다. 이날은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류 활동이 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필리핀 국립대학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908년에 개교하여 필리핀 전역에 의학, 법학, 공학 등 8개 소속 대학을 둔 종합대학군이다. 보통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로 불린다. 세계 100대 명문대학이다.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필리핀 국립대학에서는 주요 학과 중 하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학이 섞인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연구하고 정확히 어떻게 돕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공부한다.



아래 단체 사진 오른쪽 맨 끝에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서 계신 Jhon Ko 교수님은 캠프와 교류하며 지역개발학과를 이끈다. 우리에게도 짧은 시간 많이 가르쳐 주신 감사한 분이다.

Jhon Ko 교수님은 우리가 필드트립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 준비할 때 우리에게 지역조사방법론 교육해 주셨다. ZOOM을 통한 강의를 마치 시며, 우리에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를 주제로 간단한 발표 과제를 선물해 주셨다. 우리는 약 1주일 뒤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들 앞에서 준비한 과제를 발표했다.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생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또래 한국인을 처음 만나도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데 서로 너무나도 낯선 상태로 만났기에 이 인연은 더더욱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아주 간단한 통성명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는 개발 협력에 관한 교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명분이 분명했기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발표는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Jhon Ko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전에 내주신 과제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다소 숨이 막혔다. 발표의 첫 타자는 다름 아닌 나였기 때문이다. 긴장감을 애써 기분 좋은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발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발표 주제로 다른 기업은 ‘위캔쿠키’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름만 봐도 쿠키 회사임을 알 수 있지만, 쿠키 만드는 직원 대부분이 장애를 가졌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쿠키를 만드는 이들의 모습이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이 충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쿠키를 만들고 있는 그들의 표정,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매우 인상 깊었다. 자신이 가진 한계에 부딪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저렇게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작은 염원을 담아 발표를 마쳤다. 우리는 한 명씩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전하였고, 뒤이어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들도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 ‘익팅’을 이끌고 계신 어머님들 덕에서 직접 생활하며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이였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Jhon Ko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과제를 내주셨는지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찾아온 우리를 위해 어머님들의 집에서 6개월간 함께 동고동락한 이야기를 준비해 준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만드셨던 것이다. 비록 영어로 발표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학생들과 깊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나누었고 우리는 꽤 긴 시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U.P 학생들의 이러한 동고동락 프로그램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전문용어로 ‘FIP’라고 부

르는데, Field Introduction Program의 약자이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몸소 배운다고 한다. 익팅의 나나이(Nanay, 필리핀 어로 어머니)들은 학생들과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며 남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다. 6개월이 지난 뒤에는 헤어짐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라고 한다.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은 나나이들의 손길이 닿을 삶에 직접 녹아들어 밖에서 보면 알지 못하는 나나이들의 어려움과 실제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들여다본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와 함께 지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이 되어 모든 일과를 공유하고 공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믿기 어려웠다.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들이고 나의 사적인 일과를 그들에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개발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나이들도 얼마나 지역개발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들의 기나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하루하루 의미 있게 쌓여 갔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어색함은 여기까지, 친해지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발표가 끝난 뒤 Jhon Ko 교수님은 처음 만나 어색할 우리를 위해 게임을 준비했다. ‘닥터 짹짹’이라는 게임이다. 모두 강강술래 하듯 손을 잡고 원 형태로 선 뒤, 서로의 팔을 꼬거나 다리를 건너서 짜배기처럼 엉키게 만든다. 그다음 닥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엉킨 팔다리를 풀어서 처음처럼 깔끔한 원 형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임이다. 물론 닥터는 우리가 팔다리를 꼬는 과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닥터는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가 짜배기처럼 엉킨 뒤 “닥터 짹짹!”이라고 외치면 나타나서 우리의 꼬이고 꼬인 상태를 해결한다. 닥터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은 다름 아닌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의 남윤형, 이진수 선생님이었다. 우리를 한국에서부터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이시다. 더운 날씨 탓에 선생님들도 진땀을 흘리며 우리를 풀어 주셨고, 우리도 엉킨 채로 땀을 흘렸지만 힘든 줄 모르고 웃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발표도 듣고 게임도 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또래 친구와 대화는 역시나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주제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한국 문화 인기가 뜨겁다는 것도 이 시간에 체감할 수 있었다. 함께한 식사 자리는 필드트립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생 대대학생으로 웃고 떠들며 한층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기쁨은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순간은 소중한 가르침을 남기고...

앞서 설명한 ‘닥터 콕’은 단순히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게임인 줄 알았으나, 이 게임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었다. 처음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닥터에게 아무 힌트도 줄 수 없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우리도 닥터를 도와서 힌트를 줄 수 있었다. 역시 두 번째 라운드에서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엉킨 팔다리를 풀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닥터에게 “제 오른팔을 이 친구의 머리 위로 넘겨주세요.”와 같은 힌트를 주고 닥터의 손길을 통해 불편하게 엉킨 팔다리가 하나둘씩 풀릴 때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되찾았다.

Jhon Ko 교수님께서서는 두 번째 라운드가 더 쉬운 것을 모두 느꼈다면, 이 게임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처럼 서로의 교류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서로 연결된 부분이 엉키면 한쪽을 풀어낸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공동체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깨달음일 것이다. 당사자들과의 진실한 소통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은 더 없이 아름다운 땀방울이 될 것이다.

교수님은 “two step forward, one step back”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배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에

만 급급했던 나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었다.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들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깨달음과 값진 추억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이 시간을 통해 필리핀의 대학생들도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노력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 몰랐던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들과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싶은,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흘러넘쳤다.

그들의 빛나는 눈빛과 힘찬 말투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더욱더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타워빌의 대표언어 영어

타워빌의 대표언어
그리고 스와일

목원대학 경찰법학과 _ 이지인



밤 12시. 우리는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 도착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위험하다. 공항에 내리고부터 긴장되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엄청난 인파에 놀랐다. 마치 피난 가는 사람들 같았다. 숙소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덥고 습했다. 더운 날씨와 필리핀식 영어를 들으니 필리핀에 왔다는 게 실감 났다. 밤늦은 시간이라 숙소까지 가면서 풍경을 잘 보지 못했지만, 한국 롯데리아와 비슷한 필리핀 대표 패스트푸드점인 Jollibee(졸리비) 만큼은 눈에 잘 띄었다. 필리핀에 가면 졸리비는 꼭 먹어 보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도 모두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졸리비 개수를 셀 정도로 졸리비를 먹길 간절히 원했다.



아침을 먹은 후 불라칸 산호세델몬테에 타워빌(Towerville)이라는 마을로 이동했다. 숙소에서 불라칸 산호세델몬테까지는 차로 40분 이동했다. 산호세델몬테에서 타워빌 안에 있는 캠프까지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필리핀 대표 교통수단이다. 스틸 있고 재밌었지만, 오토바이 매연으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타워빌은 필리핀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있는 마을이다. 정부가 조성한 마을로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강제 철거로 집을 잃은 5만 여 명의 주민이 산다.

타워빌 인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주민 대부분 마닐라에서 이주해 왔다. 타워빌에서 마닐라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기에 이주와 동시에 대부분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없기에 타워빌 대

부분 여성은 마닐라에 남편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산다. 캠프 강사님에 따르면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기대했던 ‘졸리비’는 이들에게 생일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먹는 특식과 같은 음식이다. 우리에게겐 롯데리아와 같은 존재인데 이 말만 들어도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캠프에 도착 후,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타워빌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수많은 개와 고양이 덕분에 첫발부터 개똥을 피하느라 골치였다. 개똥을 피하느라 정신없을 때, 타워빌 동네 꼬마들이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k-pop의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면 마치 블랙핑크가 지나기라도 한 듯 졸졸 따라와 사진을 찍어달라며 수줍게 휴대전화를 내밀곤 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골목골목 수많은 집이 뺨뺨했고 가족 중심 문화인 필리핀답게 빨랫줄에는 아이부터 어른의 옷가지가 죽 널려있었다. 곳곳엔 농구 골대도 많아 필리핀 사람들의 농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필리핀은 아침 10시, 오후 3시에 ‘메리엔다’라는 간식 먹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인지 과자를 파는 상점이 정말 많았고 ‘퍽퍽’이라고 불리는 메추리알 튀김, 바나나 튀김 등 심심한 입을 달랠 먹거리 상점이 매우 많았다.

골목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은 점점 더 열악했고 주택 형태를 한 집은 드물었다. 주택 내부도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캠프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중 가정 방문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타워빌 주민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었다. 밖에서 보는 모습보다 내부 모습은 훨씬 더 심각했다. 전등은 없었고 악취도 나며, 엉덩이 하나 붙이기 힘든 구조였다. 그 안에서 혼자도 아닌 가족 단위로 살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 환경을 체념한 그들의 상황은 더욱 가슴 아팠다. 정신 병원에 입원한 아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병원까지 갈 교통비조차 구하기 어려워 아들을 보러 가지 못한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타워빌에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 뻘뻘한 일정과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긴장을 놓지 못했지만, 타워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었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는 분명 언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딸락에서 찾은 행복의 의미

타워빌에서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딸락주 산호세시로 넘어갔다.

딸락 지역 주민은 옥수수과 쌀농사가 주업이다. 하지만, 많은 농부가 소작농으로 높은 땅 임대료와 중간상인 횡포로 힘들어한다.

캠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 농사를 지었다. 필리핀은 대부분 수입한 콩에 의존하는데, 콩 농사를 지어 상품화하면 주업이던 쌀과 옥수수 농사 수입보다 세 배 정도 더 이익을 내리라 예상한다. 또한 파트너 농부들이 처음 짓는 콩 농사를 두려워해 캠프에서는 시범 농장을 운영한다. 또한 딸락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하여 모리오네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딸락 지역 농업가 치사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딸락지역에서 신후안 초등학교에 가는 길에 보이는 마을은 교육 봉사를 가기 전과 후가 달랐다.

교육 봉사 가는 길에 본 마을은 생동감이 없었다. 타워빌에 비하면 크고 넓은 주택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느낌의 주택은 아니었고 사람의 온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봉사 시간 동안 아이들과 감정을 나누고 아이들의 미소와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같은 길이었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느꼈다. 아이들의 하교 시간과 겹쳐 집에 활기가 생겨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여행이었다면 염두에 두지 않았을 타워빌과 딸락, 두 지역을 방문하면서 수혜국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깰 수 있었다.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나의 행복은 행복의 종류는 달라도 행복한 정도는 그들과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지만 그 형태가 달라도 행복 할 수 있다는 것을 타워빌과 딸락 주민을 통해 배웠다. 그들의 미소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걸까?



딸락 센터 및 지역 라운딩 관련

농산물로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네이처링크

경상대학 경영학부 _ 배근영

네이처링크와 올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이처링크(Nature Link)는 2019년에 설립한 캠프의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 이끌어가는 익팅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처링크는 기관주도형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의 수요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해 직원을 채용했다. 이후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업 이양을 목표로 한다. 네이처링크는 브랜드 올가(ORGA)를 운영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 가공, 유통하여 수익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자연 유정란, 두부, 콩물, 현미칩 등을 판매한다.

네이처링크 설립

익팅은 자립했으나 정작 캠프는 자립하지 못했다. 아동 결연을 하지 않고 종교 기반의 활동이 적어 한국의 후원 구조가 튼튼하지 않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한다. 수입이 끊기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 기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 떠나는 것보다는 캠프가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캠프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캠프는 네이처링크를 설립했다.

그렇다면 왜 농업이었을까? 캠프는 적은 자본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필리핀은 햇빛이 풍부하고 많은 비가 내려 농사짓기 좋은 농업 국가이다. 농업은 범위가 넓고 대기업이 많아 자본에 의존하지 않은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농업이었다. 농업은 필리핀의 가장 큰 산업이자 35% 이상의 국민이 종사하지만, 농민 중 60% 이상이 빈곤한 상태이다. 생산성 문제도 있지만 유통과 물류 구조에 문제도 컸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캠프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건강한 음식을 권유해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기 어려웠다.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많은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채소보다 고기를 먹으려 한다, 냉장고가 없어 튀기거나 짜게 조리해야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캠프가 직접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달걀 생산과 시행착오

달걀은 현지 시장에 기반을 둔 선택이었다. 달걀을 구매하면 노른자가 터지고 비린내가 났다. 상온에서 유통해 빨리 상하고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 교민과 필리핀의 고소득층 사이에 좋은 달걀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캠프는 좋은 달걀을 생산하면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철용 대표님은 지인과 대화를 통해 충북 보은의 보나공동체를 소개 받았다. 해외 선교지에 양계장을 세워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였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양계장을 지었다. 친환경 유기농 양계를 모델로 삼았다. 필리핀 기후에 맞는 적정 기술을 배운 후 블라칸주 타워빌에서 병아리 300마리와 함께 양계장을 시작했다.

처음 닭이 알을 낳았을 때는 행복했다. 닭 300마리는 하루에 약 200개의 알을 생산했다. 그러나 알은 쌓이는데 판매할 곳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제품을 생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에 알을 세척할 공간은 없고 판매처도 없어 처음엔 생산한 달걀을 사료로 사용했다. 나중에는 판매를 위해 직접 뛰어나고 냉장시설과 냉장유통 구조를 구축했다. NGO단체 대표이자 목사였던 대표님은 비즈니스를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계속 성장했다.



달걀의 시장 진입과 딸락 농장

달걀을 판매하기 위해 처음 진입한 시장은 교민사회였다. 현지 시장에서 달걀은 한 알에 5~6페소, 한화로 125~150원이다. 네이처링크에서 판매하는 달걀은 두 배 이상의 가격인 13페소다. 그 이유는 자연양계 방식에 있다. 사료를 먹이고 한곳에 몰아 키우는 일반 양계 방식이 아닌 자연의 것을 먹여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달걀 가격이 비교적 높지만, 규모에 비해 수익성은 낮았다. 달걀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의 경제력이 낮다면 구매가 어렵다. 그래서 캠프는 마닐라로 나갔다. 초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 인연이 있는 교회에서 시작했다. 달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입소문이 교민사회에 퍼지면서 시장이 커졌다. 현재는 40여 군데 마트에 납품하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며 네이처링크 매장까지 운영한다.

달걀의 주문이 많아지면서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타워빌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고 불라칸에서 농사짓는 지역을 찾아보았지만, 비용이 맞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협력하고 있던 현지 교단의 목사님과 의논했다. 딸락이라는 농촌 지역을 소개받았다. 2017년 딸락으로 가서 양계장을 짓고 쌀, 옥수수, 콩까지 재배했다. 달걀은 불라칸 농장과 딸락 농장 두 곳에서 생산한다. 불라칸은 백업 농장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딸락 지역 농민과 쌀 생산

딸락 주 산호세시는 서울시 면적에 인구는 4만 2천 명이다. 지역 주민 90%가 쌀농사를 짓는다. 필리핀 지역 중 쌀 생산량 3위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시장 구조 문제로 주민의 삶은 빈곤하다.

추수할 때, 콤파인이라는 기계를 사용한다. 농민들은 대부분 콤파인이 없어 이를 업자에 맡겼다. 벼를 수확하면, 기계 사용료로 20%를 가져갔다. 나머지 벼 80%는 길가에서 자연 건조해 포장하면 지역을 돌아다니는 중간상들이 구매한다. 이들에게 제때 팔지 못하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격을 흥정할 때 중간상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같은 시기에 추수해도 저렴한 때는 벼 1kg에 12페소, 약 300원이 되지 않고 높아도 17페소, 약 250~300원 사이에 판매한다.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다. 1kg에 20페소가 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40페소에 이른다. 농민에게 불리한 유통구조다.

캠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와 의논해 도정기를 구비했다. 지역 농민이 무료로 도정할 수 있고 왕겨, 미강, 깨진 쌀 같은 부산물은 캠프가 소유하기로 했다. 농민은 도정 후 직접 판매하거나 캠프가 판매를 대행한다.

캠프는 현지 대학교수와 연계해 산호세시를 1년 동안 조사했다. 산호세시에는 자기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 70%에 달했다. 과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정부의 토지개혁으로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다. 보통 농사짓는 비용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이 돈이 없는데 은행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중간상이나 자금이 있



도정기



가공한 쌀

는 사람에게 땅문서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 이율은 한 달에 8%로 높았다. 수확까지 걸리는 4개월 동안 32%가 이자로 들어간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로 두 배의 이자가 붙었다.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수확이 좋지 못하면 돈을 갚지 못해 땅문서를 찾지 못하고 땅을 잃었다. 산호세시 농부 대부분이 소작농인 이유다.

이들에게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캠프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캠프와 공동으로 생산하기를 원하는 농민들을 그룹화해 땅과 볍씨, 비료를 제공했다. 대신 캠프의 고객이 선호하는 끈기가 가미된 볍씨를 제공했다. 소작농 입장에서 땅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판로도 생겼다.

품종다각화, 콩

산호세시 농민은 보통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는다. 벼농사를 짓고 나면, 물이 부족해 옥수수 농사를 짓는다. 쌀은 저렴하고 매일 먹어야 하는 작물이어서 시장은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그래도 벼농사는 지역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했다. 다만, 캠프는 옥수수와 비슷하게 물이 없어도 기를 수 있는 콩을 키우도록 권장했다. 달걀을 구매하던 고객들이 다른 제품도 판매해 주기를 원했다. 고민하던 차에 두부를 떠올렸다. 필리핀의 두부는 먹으면 시큼하고 꼬릿한 향이 난다. 한국에서는 간수를 사용하지만, 필리핀은 응고하기 위해 다른 화학제품을 사용하면서 냄새가 발생한다. 깨끗하게 포장하지 않고 물

에 담가 놓고 판매해 두부의 상태가 좋지 않다.

콩은 시중 도매가로 1kg에 65페소 이상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12월에서 4월 사이에 농사를지으면 캠프가 책임지고 전량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캠프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판매할 수도 있다. 캠프는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씨앗과 비료, 자금을 지원한다. 콩 농사로 품목을 다각화한 네이처링크는 장기적으로 딸락을 두부, 콩 특산지로 만들고자 한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산호세시 지역 농민에게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었다. 생산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캠프는 가공센터를 만들고 농산물을 직접 가공했다. 유기농 쌀과 콩으로 두부, 두부과자, 현미 건강칩을 만들어 ‘올가’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를 만난다. 현재 지방 정부와 함께 딸락에서 생산했다는 의미를 담아 심플리 내추럴(Simply Natural)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브랜드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 제품이 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네이처링크 매장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에 있는 네이처링크 매장은 두부, 콩물, 자연유정란, 현미 건강칩, 두부과자 등 올가 제품을 판매한다. 소비자가 건



강한 먹거리를 즐기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유기농 제품도 판매한다. 더 작은 공간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서 확장 이전한 상태다.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2023년 1월 28일에 임시로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근처에 콘도미니엄이 많아 건강한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매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매장은 친환경 제품, 사회로 환원하는 매장,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초록색과 목재로 꾸몄다.

네이처링크 배송 서비스

네이처링크는 한국, 필리핀 고객을 대상으로 배송을 진행한다. 배송은 캠프의 한국인 단원 선생님들과 네이처링크 현지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한인 대상 배송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아 매주 목, 일요일 배송을 한다. 요일별로 보통 30건, 20건 이상 배송이 간다. 주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불러간 생산팀에 두부와 콩물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연락하고 생산된 제품을 가져와 배송한다. 현지인은 페이스북이나 바이버라는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 2017년 기업이 생기기 전부터 배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주문하는 고객들도 있어 그 힘으로 네이처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처링크 판매 방식

네이처링크 제품은 친환경 생산 방식이어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마닐라에서 달걀은 한 알에 13페소, 쌀은 1kg에 65페소이다. 그러나 타워빌에서는 절반 정도 가격에 판매해 지역 주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싸게 살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청년들이 익팅 매장 옆 작은 매장에서 판매한다. 지역에서 판매한 수익은 전적으로 청년들이 관리한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맡아 진행하지 않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는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캠프에도 훈련 과정이다.

국가 기관의 지원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네이처링크 직원들 또한 캠프에서 장학생 청소년들을 키워 대학교를 졸업하면 채용했기 때문에 사업에 익숙하지 못했다. 네이처링크는 2020년, 필리핀 UNDP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ISIP(Innovation for Social Impact Partnership)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개월 동안 마케팅, 재고, 품질관리 등 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끝냈을 때 필리핀에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 코이카, 필리핀 코이카, 필리핀 UNDP의 지원이 연계되는지, 지원의 아쉬운 점은 없는지 궁금했다. 코이카 사업 구조는, 현지에서 사업을 개발해 제안서를 본부인 한국 코이카에 제출한다. 선정되면 필리핀에 맞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필리핀 코이카와 함께한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 사업 내용 변경, 모니터링은 필리핀 사무소가 담당한다. 코이카 본부에서 사업을 받고 필리핀 사무소에서 관리 운영을 함께하는 구조다. 필리핀 UNDP는 코이카와 상관없으나 코이카 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공신력이 생겨 UNDP에 사업을 소개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코이카 지원 사업은 3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지원해 선정되면 3년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다. 사업 수행 기관은 한 사업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속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년 성과를 내고 3년마다 사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행정 업무가 현장 활동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네이처링크 앞으로의 발걸음

네이처링크에 속한 사업장은 올가의 리더인 아또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넘길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양이다. 한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할 때 NGO 사업은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15억 원 중 평균적으로 50%를 인프라에 투자한다. 3년이 지났을 때 이양하기는 쉽지 않다. 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 ODA 자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익팅의 봉제센터는 코이카 사업으로 12년을 했다. 오랫동안 한 곳에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네이처링크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3년이 지나고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미래에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다. 조부영 지부장께서는 농장은 아또를 중심으로 하는 팀에, 매장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딸락 농장은 주민 조직에 이양하면서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

봉제센터 익팅활동

익팅, 타워빌에
대시 봉제센터(리소스)를

경상대학 경영학부 _ 이원정

봉제 기술 없는 사람들의 봉제센터, 익팅

타워빌은 이주민이 사는 곳이다. 초기에 이들이 이주했을 때는 학교, 병원, 식수, 일자리 등 생계와 관련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폐허 같은 상태였다. 익팅은 사단법인 캠프 초창기 사업으로 코이카와 함께 2011년 타워빌에 설립한 봉제센터다.

이철용 대표는 타워빌 지역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어머니들은 봉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철용 대표는 인터뷰, 가정 방문, 훈련 테스트를 거쳐 다자녀, 여성 가장, 수입 없는 사람을 먼저 선발해 봉제센터 익팅을 설립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일을 하려는 의지와 기술을 보유한 어머니들도 선발했다.

캠프는 기계 20대를 들여 봉제센터를 새롭게 마련했다. 옷은 못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봉제 기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캠프 예상과 달리 기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캠프는 필리핀 정부 직업기술센터 태스





다(TESDA)에서 전문가를 모셔 와 정부 인증(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직업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모두 익팅에 취직할까?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취직하거나 개인적 생계를 이어가기도 한다. 직업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취업 시장에 나갈 수 있다. 또한 어머니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타워빌 전체 소득도 상승했다. 캠프의 장기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익팅을 더 면밀히

익팅은 봉제 기술 영역과 판매 · 조직 · 회계 등 회사 운영 영역을 다르게 구성했다.

캠프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으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역과 출신이 다른 다양한 사람으로 다섯 그룹을 구성하였다. 사회공헌팀, 재무 및 마케팅, 멤버십, 생산, 훈련이다. 각 그룹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리더가 관리한다. 필리핀은 수많은 섬, 수많은 언어가 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하기 위하여 생긴 관리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익팅의 임금 구조는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동적으로 본인이 일하는 만큼 돈을 가져가는 피스레이터가 있다. 본인이 많이 일하면 벌어드는 돈이 많고, 적게 일하면 벌어드는 돈이 거의 없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회사와 같은 고정급이다. 마케팅이나 회계 분야에서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일당을 건별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람)에

게 지급한다. 당연히 전기 및 수도세,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도 발생한다.

익팅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수입의 일부를 모아 장례, 치료, 결혼 등 갑자기 큰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론(loan)이다. 자본의 축적은 앞으로 익팅의 숙제가 될 것이다. 익팅은 구성원 협력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모색한다. 나는 그들이 만든 규칙을 지켜가며 협력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나나이, 어머니, 함께 성장하는 우리

익팅에는 한때 100명의 어머니가 모였다. 현재는 40명의 어머니가 있다. 현재 익팅 대표는 웅 어머니시다. 웅 어머니는 본인들을 ‘나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다. 나나이는 필리핀어로 어머니라는 뜻이다.

익팅 나나이들은 직업기술훈련 때는 소득이 없다. 직업기술훈련 때 금전을 제공한다면 장기적인 훈련을 모두 끝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일까? 대신 아이가 있는 집에는 분유를, 어른이 있는 집에는 비타민을 제공한다. 훈련이 끝나고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면 소득이 생긴다.

간단해 보이는 이 규칙도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직업기술 훈련 도중에 수많은 이탈자가 생겼다. 필리핀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 또한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 수가 많다. 함께 얘기를 나눴던 나나이들은 적어도 3명 이상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

교육 기간에 금전적 수입이 없는 건 큰 타격이다. 그러나 익팅은 단기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다. 캠프는 당장 하루 뒤, 일주일 뒤가 아닌 오 년 뒤, 십 년 뒤를 생각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은 캠프가 추구했던 ‘장기적인 성장,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캠프는 중도 이탈자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아이들 때문에 중도 이탈자가 생겼을 때는 유치원을 세웠고, 부모님이 갑자기 명을 달리하셨을 때는 병원을 세웠다, ‘가까운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마을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에서다. 구역을 나눠 의사가 집마다 회진을 돌았고 자원봉사자가 세 가구씩 맡아 상태를 체크했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캠프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또한 나나이들이 마을을 지키는 일도 자원하였다. 물론 코로나19가 심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지만, 중요한 건 캠프를 포함한 ‘나나이’들의 주체성이다. 조부영 지부장님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다.

“한번은 익팅의 나나이들과 함께 중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 갔어요. 그는 저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물건에 대한 흠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실밥이 어떻게, 마감이 어떻게 하면서요. 그는 250페소였던 물건을 130페소까지 깎았어요. 결국, 그 공장과의 거래는 실패했어요. 어머니들은 매우 낙담했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들을 자본 시장에 내모는 것이 좋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판매도 매우 잘하십니다.”

캠프와 익팅은 2017년 분리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가 퍼졌을 때, 캠프는 익팅에게 마스크 제조를 부탁하였다. 익팅은 캠프에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자문한다.

나나이들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비록 익팅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봉제센터에 몰두하여 새로운 거래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앞으로의 익팅, 긍정적 물결에 노를 젓다.

어머니들과의 대화 시간 중 한 어머니는 ‘캠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캠프 조영은 간사님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해 익팅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번역했다.

캠프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캠프는 정착할 수 없다.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타워빌이 캠프를 기다린다.

가정 방문 시간 때 자신에게 할당된 식량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익팅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나는 익팅은 단순한 봉제센터가 아닌 주민 조직의 핵심이며 마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익팅 라운딩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익팅은 성공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향후 익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익팅에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가진 리더십으로 지역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보건과 교육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익팅을 중심으로 봉제센터, 보건,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캠프는 다른 지역에 더 집

중할 수 있다.

익팅은 그 존재만으로 지역 사회에 희망이 될 수 있다. 이주한 사람들에게 경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익팅은 또한 캠프의 사업 중 긍정적 사례로 남아 다른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익팅이 지금은 촛불일지라도 다른 지역과 함께 큰 햇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필리핀 산호세 델몬테시 익팅 봉제센터

모든 것을 삼켜버린 괴담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떠나기까지

사범대학 교육학과 _ 박시원

필리핀 산호세 델몬테시 익팅 봉제센터를 찾아가는 길. 센터로 들어가는 담장에 그린 커다란 벽화가 먼저 우리를 맞아 준다. 익팅과 캠프의 분리를 앞둔 2016년, 익팅의 구성원들은 모두 모여 붓을 들었다. 벽면의 오른쪽에는 불타고 있는 마을과 물에 잠긴 건물들, 그 위에서 빛을 비추는 커다란 배 한 척이 보인다. 벽의 가운데에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또 다른 배 한 척이 있다. 익팅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담겨 있다는 벽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이 커다란 그림의 주인공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나나이 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51살입니다. 다섯 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타워빌에서는 2004년부터 거주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살았던 집은 강가에 있었어요. 비가 오면 자주 침수가 되었는데, 2004년에는 필리핀을 강타했던 태풍으로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과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타워빌에 왔지만, 당시 타워빌은 가족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전기, 물, 먹거리와 같은 생활 기반은 물론 일자리도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는 마닐라에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타워빌에 2010년, 캠프라는 NGO가 찾아왔습니다. 캠프는 가가 호호 주민의 상황과 의견을 조사했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 어머니들과 봉제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창립멤버입니다. 우리는 먼저 3개월간 봉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캠프로부터 우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솔직히 어려우리라 생각했어요.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훈련과 배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직접 만든 상품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특히 배움에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도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익팅의 생산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완벽할 수 없기에 동료들 의견을 듣고, 내 의견도 이야기하며 우리는 함께 익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런저와 동료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어엿한 사업가가 된 저는 이제 꿈이 많아요. 익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익

팅의 구성원을 늘리고 싶고, 익팅의 봉제 기술을 발전시켜 시장 경쟁력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익팅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나이 웅은 익팅의 리더로서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 팀에게 익팅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으며, 2021년에는 여성의 날 웨비나에서 익팅의 대표로 발표를 맡아 이주민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삶을 산다. 대표로 발표를 맡아 이주민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2. 나나이 레티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세가 된 레티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 태풍 온도이의 피해로 타워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케손시티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27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몸이 좋지 않아 공부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타워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알았습니다. 친구로부터 봉제 훈련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42살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자격 기준을 넘는 나이였지만, 초대 회장님이었던 나나이 에블린을 찾아가 부탁하였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익팅에서 일했습니다. 저와 가족의 삶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익팅에서 일을 한지는 이제 8년 정도 되어 가네요. 필리핀에서는 60살



정도가 되면 일을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지요. 하지만 익팅은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캠프와 같은 지원 단체를 비롯한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주민의 자립을 목표로 시작한 봉제센터 프로젝트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 참여로 결정하고 진행했다.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냈다. 타워빌에서 만난 나나이마다 익팅과 익팅의 상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모두 멋진 사업가 모습이지만 생애 처음 배운 봉제 기술로 사업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을지 놀랍기만 하다. 캠프의 도움으로 봉제기술 훈련을 이수한 이후에도 필리핀 대학 지역개발학과 학생들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훈련과 배움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워크숍을 통해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보듬었고, 작은 마음을 모아 더 큰 도전을 했다. 생산을 넘어서 판매와 경영, NGO,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대하여 배우면서 일을 이해하고, 일이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의미, 목표를 스스로 찾았다.

큰 파도가 한순간에 삶을 집어삼켰을 때, 캠프라는 큰 배를 만났던 나나이들은 스스로 배를 지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제 그들은 어엿한 사회적 기업의 주인으로서 힘을 합쳐 당당하게 지역과 사회를 향해 나아간다.

자립농장 현장 중계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농장 방문기

경상대학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_ 유승연

자립농장으로 떠나보자

햇볕이 뜨겁고 날씨는 습한 1월의 필리핀. 오프로드용 자동차에 옹기종기 탑승해 바람을 가르며 흐르는 땀방울을 식혔다. 가는 길은 울퉁불퉁. 차가 흔들렸고, 심지어는 얇은 강을 건너야 했다. 우리는 사과리 탐방하는 것 같으며 깔깔댔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을 감상하던 그때, 차가 멈췄다. 도착한 곳은 자립농장이다.

닭은 너나할 것 없이 ‘꼬끼오~’ 울어대고, 눈앞에 보이는 건 소와 말, 그리고 초록빛을 띤 자연이다. 자립농장에서는 양계와 콩을 재배했다. 다른 시기에는 쌀농사, 옥수수 농사도 짓는다. 자립농장은 주민 중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과 함께 농사지며 기술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곳이다. 자립농장 전기는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말은 가족 같은 존재로 여덟 마리가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큰 양계장이었다. 한국에서 보던 좁디좁은 뜰장에 갇힌 닭이 아니었다. 넓은 장에서 유유히 ‘꼬끼오~’ 소리를 내며 걸어 다녔다. 대표님께서 양계장의 좌우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더운 날씨로 닭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이를 위해 양계장의 높이를 높게 해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셨다. 사료는 센터에서 만든 사료를 먹여 다른 닭에 비해 더욱 튼튼하다. 만일 닭의 상태가 안 좋을 땐 다른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원래 양계장엔 닭이 6,00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워져 주민에게 나눠주고 작년 후반에 다시 사육을 시작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39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

하고 솥으로 난로를 만든 집에서 한 달을 키운다. 보통 양계장을 가면 닭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거의 나지 않았다. 양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코코넛 껍질과 왕겨를 섞어 발효시킨 사료를 먹이는 게 신기했다. EM, 즉 유용한 미생물로 닭이 건강하고 양계장에서 냄새가 안 난다니. 어쩐지 우는 목청도 남다른 것 같더라.

어떻게 자립농장을 설립했는가?

캠프는 '주민 자립'을 비전으로 삼았다.

필리핀은 쌀 자급률이 85%이다. 생산량이 많지만, 국민 소비량 또한 어마어마하다. 딸락 지역 농민은 쌀을 생산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판매를 위해선 벼를 도정해야 하는데 도정 시설이 없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농민은 열심히 수확한 벼를 중간 상인에게 싼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캠프는 딸락 센터에 도정기를 두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벼를 도정해 시중보다 쌀의 품질을 높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쌀농사뿐만 아니라 벼섯, 콩, 옥수수 재배 등 자립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젝트가 빈곤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해 건강한 자립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딸락 지역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이루어지고, 마닐라에서 마케팅과 판매가 이루어진다.

필리핀의 95%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콩을 사용하기 때문에 콩 농사는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캠프는 농민에게 콩 농사를 장려하지



만, 평생 쌀농사만 지은 농민에게 생산 품목을 바꾸라고 하면 선뜻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농민에게 캠프는 씨앗이나 비료, 땅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초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경작한 작물은 캠프에서 가공하고 판매한다. 땅값은 받지 않고 공동경작을 진행하고, 수익의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농민은 지원받은 양의 두 배로 종자를 갖고, 캠프는 다시 그 종자를 다른 농민에게 빌려주거나 농사지으며 생산을 이어간다.

자립농장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종자를 재배해 판매한다. 농민들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캠프는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수확한 농산물의 전량 수매를 제안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농민은 자신 있게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콩 농사짓는 디존 아저씨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 넓은 대지에 몇 그루의 나무가 만든 그늘에 한 분이 서 계셨다. 대표님은 그와 인사했고, 그는 우리를 환하게 반겨주었다. 그의 이름은 디존이었다. 13만 평의 땅을 소유한 땅 부자시다. 농업을 공부한 농업 전문가시고, 아들은 네덜란드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발아율이 중요한데, 콩은 처음으로 도전해 작물이 잘 자랄지 걱정이라고 하셨다. 함께 농장 일을 하는 농민들도 콩 농사가 처음이라서 지켜보는 상황이고, 약 75%에서 80%의 발아율을 보인다고 하셨다. 콩 농사를 지은 지 일주일이 된 콩은 새싹이 여기 저기 보였다. 초록빛 새싹은 모두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다. 디존 아저씨는 땅의 지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어느 정도 싹이 틀 때 물이 고일 수 있어야 식물이 잘 자란다고 했다.

12월부터 3월, 좀 더 길어지면 4월까지가 콩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디존 아저씨 땅은 좋아서 좀 더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발을 갈고 씨앗을 뿌리거나 추수할 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일손이 많이 안 필요해 세 명의 일꾼, 식구와 함께 일한다.

쌀은 어느 정도 수확했는지 궁금했다. 작년에 비해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쌀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말해 주셨다. 수확량이 거

의 반절로 감소했다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가 오는 3~4월에 95%가 넘는 콩 수확의 결실을 보길 바란다.

우리는 딸락 네이처링크 센터에서

자립농장을 방문한 우리는 세 가지 업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관계로 우리 팀은 선택권이 없었다. 첫 번째 팀은 친환경 양계에 사용할 사료를 만들었다. 그들의 임무는 땅에서 발효시킨 고두밥으로 만든 주먹밥에 흑설탕을 섞는 것이다. 이 주먹밥은 겉면에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미생물이 생긴다. 땅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배양했다. 이 또한 지속 가능하고 자급할 수 있다. 이 미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 먹이인 설탕과 주먹밥을 약 1:1로 섞는 것이다. 설탕을 먹여 수를 늘린 미생물은 가축을 기르는 데 사용한다. 미생물을 먹고 자란 가축은 면역력이 높고 건강하며, 건강한 가축은 건강한 식품을 제공한다. 밥이 흑설탕에 절여질 정도로 많이 넣어야 하는 게 포인트이다. 이 사료를 먹은 닭은 장기가 튼튼해져 건강하다. 이 귀중한 체험을 혼자만 하면 안 된다며 모두가 흑설탕 밥 사료를 섞어 줬고, 그들이 만든 건 통 안에 넣었다.

두 번째 팀은 힘쓰는 일을 했다. 그들은 코코넛 껍질, 왕겨, 비료를 삼으로 섞는 일을 했다. 중간중간 마른 부분이 없도록 물을 뿌렸다. 아무래도 삽질이니 힘을 많이 썼다. 흠까지 퍼내면 안 돼, 그들에게 힘과 세심함이 필요했다.

우리 팀은 도정기에서 제대로 도정되지 않은 쌀을 손으로 골라내야 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 껍질이 안 벗겨진 쌀 고르기다. 하얀 쌀알 속 갈색빛을 띠는 쌀을 찾느라 눈이 빠질 뻔할 즈음, 다른 팀원들이 와서 일을 도와줬다. 큰 대야에 셀 수 없이 많은 쌀알이 담겼다. ‘이 정도 쌀알이면 대전 인구는 족히 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쌀알 고르기를 마치고, 우리가 고른 쌀알은 도정기를 한 번 더 거친 후 바로 비닐에 담겨 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캠프가 생산한 걸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캠프에서 진행하는 자립 농장 시스템을 알 수 있었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산후안 초등학교 교육봉사

산후안 초등학교 어린이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_ 나진솔

긴장 반 설렘 반 교육 봉사 준비 시간!

필리핀 가기 전부터 가장 고대했던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산후안 초등학교 교육 봉사’라고 답할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벅찼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게임을 하기로 하고 물품을 준비했다. 교육 봉사 대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다. 특히, 영어로 봉사 대본을 만들 때 캠프 담당자분께 필리핀 초등학생들은 영어보다 필리핀 현지어인 따갈로그어로 소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갈로그어를 아예 못 하는 우리들이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수업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다. 또한 필리핀 교실에는 PPT를 띄워서 설명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없기에 우리는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전부 프린트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해서 출발 전부터 염려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 봉사를 해 본 경력도 있겠다, 이 떨리고 걱정되는 감정을 오히려 즐겨보기로 했다.



교육 봉사 전달 밤,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교육 봉사 전달 밤, 우리 팀은 호텔 로비에 모여서 제기를 직접 만들고, 색종이로 딱지를 접어 보았다. 생각보다 만들기 어려워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고 설명서를 유심히 읽었다.

손재주가 좋은 민경 언니는 만드는 법을 금방 습득해서 제기차기와 딱지 접기를 상세히 알려 주었다. 그때 민경 언니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설명서에 쓰여 있는 거 보봐. 이거 8세 이상이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직접 만든 제기와 딱지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 제기차기는 지인 언니가 가장 잘 찼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차도 2개 이상 차기가 힘들었다. 제기를 차면서 헉헉 대는 모습을 경화가 아무지게 동영상에 담았다. 시뮬레이션 뒤 우리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지 구상했다. 처음에는 본인 이름으로 소개할까 했지만, 아이들이 외우기 쉽게 우리를 블랙핑크 구성원 이름인 ‘제니’, ‘지수’, ‘로제’, ‘리사’에 빗대어 소개하기로 했다. 우스갯소리로 블랙핑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쩌나 싶었다.

마치 진짜 아이돌이 된 것처럼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 보고 우리끼리 만든 제기와 딱지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여름날의 햇살처럼 밝게 웃는 산후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다.

1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경 산후안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난다는 사실에 그러지 않아도 떨렸는데, 인사 10분 전에 갑자기 <Baby shark> 노래와 안무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유명한 <아기 상어> 노래는 필리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한다. 수업 시간이 되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나와 승연이는 그 틈을 타 앞에 나와서 부랴부랴 안무를 연습했다.

팀원 12명이 다 같이 합을 맞춰볼 새도 없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다. 산후안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앙코르!”를 외쳤다. 아이들의 환호성에 덩달아 신나서 한 번 더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 후 우리는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맡은 학년을 발표했다. 1조는 둘씩 나누어 1학년을 시원, 다영이 맡고, 2학년을 호연, 민서가 담당했다. 3, 4학년으로 구성된 2조는 진솔, 민경, 지인, 경화가 맡았다. 3조는 5, 6학년으로 승연, 원정, 소정, 근영이 맡았다. 우리는 각자 맡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했다.

다음은 1조 시원, 다영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는 1학년 아이들을 담당했다. 아이들 체구가 생각보다 너무 왜소해서 딱지치기할 힘이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시작부터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이름표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적었다. 작은 체구에도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선생님 인솔에 따라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아주 귀여웠다. “잘했다”라는 뜻의 따갈로그어(“마갈링”)를 배워 왔는데, 막상 수업을 진행하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말을 못 쓸 뻔했다. 하지만, 어느샌가 고사리손으로 딱지 접겠다고 꼬물꼬물 색종이를 접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격하여 “마갈링”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녔다. 그렇게 완성한 딱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수업도 진행했다. 분단마다 개성 넘치는 딱지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더워서 지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었다.

이번엔 1조의 또 다른 조원인 호연, 민서의 시점에서 바라본 교육 봉사 내용이다.



조가 정해지고, 첫 회의 안건은 ‘산후안 초등학교 문화교류 활동으로 무엇을 할까?’였다. 태권도, 부채 만들기, 종이접기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다양한 응용 활동을 할 수 있는 딱지 만들기로 정했다.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가장 쉬운 단어와 표현력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수업을 준비했다. 필리핀 필드트립 중에도 1, 2일 차 저녁에 조원들과 방에 모여 딱지를 접고, 인원에 맞게 딱지 키트를 배분하며 설렘을 더했다. 대망의 교육 봉사 당일, 낙후한 학교 시설과 달리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질감이 느껴져 분위기에 녹아드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으나, 헛된 걱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몇 분 걸리지 않았다.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명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전 공지와 달리, 학년별로 2명씩 나누어야 했기에 당황했지만, 각자 역할을 잊지 않고 서로서로 도왔다. 나는 전체적인 수업 진행을 맡았고 민서는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2학년이라서 쉬운 영어 단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당황했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잘 통역해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했다. 동생에게서 얻어 온 고무 딱지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잘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 놀이, 딱지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2시간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필리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전달해 줬다는 기쁨과 교육 봉사 2시간 안에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냈다는 성취감에 그날 하루는 행복함에 빠졌다. 교육 봉사 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모두가 보람찬 모습으로 활동을 마쳤다. 성공적인 교육 봉사 프로그램이었다.

다음은 2조의 교육 봉사 인터뷰이다.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했다. 이어 단오와 장명루에 대한 설명, 장명루 팔찌 만들기, 퀴즈 풀이까지, 2시간 안에 해내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퀴즈는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장명루 팔찌를 만들 때 테이프로 바닥에 고정하려 했으나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다들 혼란스러웠다. 분단을 4개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원정이 분



단 친구들은 실이 고정되지 않아 맨발로 실을 잡고 팔찌를 만들었다. 장명루 팔찌는 나무 구슬을 꿰어 마무리한다. 시간 부족으로 원정이는 구슬을 꿰어줄 때 발로 잡았던 실에 바로 침을 묻혀 구슬을 꿰어주었다고 한다. 급박하게 마무리 한 감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끝나고 “my teacher”라고 부르며 다가와서 인사해 줄 때는 감회가 남달랐다. 단체로 사진을 찍었을 때 모두가 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 상상되는가? 이 단체 사진은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따라 준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한 우리들도 자랑스럽다.

다음은 3조의 교육 봉사 인터뷰이다.

우리 3조는 교실이 협소해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우리를 소개하고 준비한 이름표를 나누어 주며 학생들이 스스로 이름을 적도록 했다. 영어로 적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음을 듣고 들리는 대로 이름을 적어주기도 했다. 그중에는 Angel, Princess 등 별명으로 대체해서 이름을 적는 아이들도 있었다.

본격적인 교육 봉사에 앞서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간단히 영어로 설명했다. 그다음 우리가 오늘 할 게임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해 주었다. 다행히 옆에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아이들도 잘 이해한 눈치였다. 아이들에게 첫 번째 게임인 딱지치기를 설명해 주었다. 정신없이 색종이로 딱지 접는 법을 알려주면서 내리쬐는 햇볕에 땀이 주르륵 흘렀지만, 아이들이 저마다 꼬깃꼬깃 색종이를 접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다. 중간에 종이접기가 꼬여서 자인 코디님과 현지 선생님들께서도 종이접기를 도와주셨다. 딱지를 잘 접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전날 밤 미리 접어둔 딱지를 나눠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접은 딱지로 1:1 딱지치기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다. 바로 Bam Bam이다. Bam Bam은 딱지를 납작하게 눌러 잘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벌써 습득했고, 무서운 상승세로 친구들을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판에 Bam Bam이 빠듯한 바람에 딱지치기의 최종 승자는 Jasmine이 차지했다. 승자인 Jasmine에겐 미리 준비한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딱지 게임까지 진행하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계획서에 적힌 시간대로 흘러가진 않아서 우리가 준비한 세 가지 게임 중 두 가지밖에 못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일단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먹을 간식을 나눠주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사이에 우리는 투호통을 접고 꾸몄다. 잠깐의 휴식 시간 뒤 다시 아이들을 모아서 투호를 진행했다. Throw an arrow into the box!라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게임 룰을 금세 터득했다. 투호는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진행하고 바로 세 번째 게임인 제기차기로 넘어갔다. 다행히 제

기차기는 필리핀에서도 잘 알려진 Sipa라는 게임과 유사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Sipa는 팔을 이용해서 제기를 들어 올리는 게임이라면, 제기차기는 발을 이용해서 제기를 차는 차이가 있다.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들이나 발로 제기를 차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Sipa의 방법과 동일하게 팔을 이용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해 주었다. 분단 별로 나눈 뒤 우리가 미리 구매한 제기 만들기 키트를 하나씩 배부하고 직접 제기를 만들게 했다.

제기차기는 다들 비슷비슷한 실력인 탓에 1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제기차기의 승자는 Hector가 차지했다.

두 시간가량 모든 활동이 끝나고, 급식 시간이 되었다. 밥과 찜닭 이 두 가지가 급식 메뉴였다. 우리는 급식 당번처럼 밥과 반찬을 나누어 주었다. 따갈로그어 인사인 “까인 마사랍!(맛있게 먹어!)”이라고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은 많은데 반찬의 양은 턱없이 부족해서 한 사람 당 닭고기 두 점에 감자 한 알만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속





상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작은 감자를 또 삼등분해서 나누어 먹기도 했고, 반찬을 다 먹은 아이들은 맨밥만 그냥 입속으로 넣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려왔다. ‘한창 커야 할 성장기 아이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더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안타까운 감정이 밀려왔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되었다. 두 시간 남짓한 수업이었지만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하교하는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어떤 아이는 공책을 주면서 선생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만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아이들이 수업 때 보여준 열정과 웃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해 준 아이들이 무척 고맙다. 먼 훗날 다시 아이들과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필리핀의 역사, 기후, 문화, 사회구조에 대하여

필리핀 필리핀

경상대학 무역학과 _ 이경화

‘필리핀’을 떠올리면 나는 곧바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떠오른다. 세부, 보라카이, 보홀은 아름다운 휴양지로 얼마나 유명한가! 그리고 필리핀 하면 노랗게 잘 익은 망고가 단박에 머릿속을 스치며 달달한 향이 느껴진다. 나에게 필리핀은 이렇듯 밝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5박 7일간 보고 느끼고 온 필리핀은 관광지에선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을 남겨 주었다. 도시와 농촌, 빈민 지역까지 필리핀 여러 지역을 둘러보았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사는 필리핀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고 필리핀 문화와 생활 모습을 체험하였다.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정리해 보았다.





필리핀 국가정보

필리핀(Philippines)은 동남아시아에 있다. 필리핀 총 면적은 3천만 ha로 세계 72위이며 섬 7천여 개로 이뤄진 군도 국가이다. 인구는 1억 1,733만 명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한다. 수도는 마닐라이며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필리핀의 기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뜨겁고 습한 공기를 단번에 느꼈다. 출국 당시 한국은 1월 한파가 한창인 겨울이었다. 두껍게 옷을 무장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우린 공항 화장실에서 반소매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필리핀은 고온 다습한 열대 사바나성 기후에 속한다. 연평균 기온은 27°C이며, 1년 중 12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 5월부터 11월까지의 우기로 분류한다. 태풍 영향이 잦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20세기 이후 가장 피해가 컸던 1976년 민다나오섬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8천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피해를 봤다. 필리핀 동쪽 바다는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태풍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다. 필리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1881년의 ‘하이퐁’으로 약 2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최근에는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6천 명 이상 피해를 봤다.

실제로 타워빌은 2009년 태풍 ‘온도이’의 피해로 발생한 이주민이 모인 이주민촌이다. 타워빌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마닐라에 거주했다. 그러나 막대한 태풍으로 집이 떠나려가고 빗물이 차올랐으며 홍수로 잠기기도 하였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타워빌로 이주해 온 주민도 있었다.

둘째 날, 익팅에 방문한 우리는 타워빌 지역에 거주하는 나나이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필리핀의 가족 중심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많은 자녀를 낳고 대가족을 이룬다. 한 가정은 7명의 자녀가 있기도 하였다. 또 집 벽면 한쪽을 자녀 사진이 담긴 액자로 빼곡히 걸어 놓기도 했다. 우리는 나나이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족 이야기를 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필리핀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제들끼리 굉장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해외로 일정을 떠난다면, 그 전날 모든 가족이 직장, 학교 등 일을 뒤로 하고 모여 파티를 연다. 가까운 친족들과 가깝게 생활하면서 기능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은 가족 중 한 명이 출세하면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도 나타난다.

필리핀의 결혼문화

필리핀에서 결혼은 가족 간 만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결혼 이전에 당사자들은 보호자 허락을 받고 교제한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종교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결혼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공인한 성직자가 서명하고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서명을 해야 법적으로 혼

인을 인정한다. 또한 혼인 신고서는 해당 관공서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혼인 신고는 무효다. 결혼 이후에 남편은 가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부인은 육아 및 가계 살림을 관리한다. 권위와 의사 결정권 등은 남편과 부인이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필리핀의 교육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하였던 산후안 초등학교 아이들은 1~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또 타워빌에서는 조그마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볼 수 있었다. U.P 지역개발학과 대학생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고등학교 2년간 심화한 내용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리핀은 과거에 기초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으로 총 10년 학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른 나라보다 기간이 짧아 국가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K-12’ 과정을 도입했다. 현재에는 초등학교 6년, 주니어하이스쿨 4년, 시니어하이스쿨 2년 과정으로 총 12년제로 학제를 변경했다. 시니어하이스쿨 2년제 교육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개념이 아닌 대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전문교육을 미리 받거나 사회에 나가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필리핀의 사회구조

우리는 타워빌에서 클락으로 이동했고 산후안에서 다시 마닐라로 이동했다. 그 두 번의 이동 과정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였다. 아이들이 맨발로 골목을 누비던 빈민촌 타워빌에서 두세 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클락은 빛나는 대형 쇼핑몰과 여러 프랜차이즈 가게가 즐비했다. 마지막 날 방문한 마닐라는 뽁뽁하고 높은 빌딩과 봄비는 차량 그리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첫날 방문한

타워빌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마치 우리나라 서울을 보는 듯했다.

필리핀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문제는 심각하다. 필리핀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족벌이 경제체제를 독과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산층이 두껍지 않다.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로 빈민층이 2,000만 명에 달하였다.

이촌향도 현상이 증가하며 필리핀 도시 지역에 빈민가가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마닐라와 세부 지역에 빈민촌이 집중했다. 수많은 빈민이 도시 지역에 몰렸으며 이들 대부분은 불법으로 점거한 지역에 산다.

필리핀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전체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농업과 제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

우리는 마지막 날 일정으로 아얌라 박물관에 방문했다.

필리핀 역사 유물을 전시한 아얌라 박물관은 마닐라에 있다. 필리핀의 문화, 종교, 예술, 역사에 관한 다양한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는 4층 규모의 박물관으로, 필리핀 최대 부동산 재벌인 아얌라 가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이다. 설립에 일조한 필리핀 유명 화가인 ‘페르난도 조 벨’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과 강의, 콘서트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현지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필리핀은 섬나라 이점을 살려 중계무역으로 산업을 키웠다. 필리핀은 대항해시대 당시에 해상 교역 중심인 지리적 요건으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문화적·물질적 영향을 오래도록 받았다. 당시





필리핀에선 동서고금 다양한 교역품과 금, 은, 도자기와 같은 값진 물품이 많았다고 한다. 그 시대 교역품을 아얌라 박물관에 전시했다.

필리핀은 포르투갈 마젤란에 의해 최초 발견, 스페인에 의해 330년간 식민 지배를 당한다. 1898년 필리핀 독립운동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나 미국과 일본에 다시 점령, 1946년 독립한 식민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필리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이 필리핀 세부섬에 처음 상륙했다. 이후 1565년, 미겔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선언했고 당시 스페인 국왕 이름을 따 ‘필리핀’이라고 국호를 붙였다.

필리핀 안에 많은 왕국은 스페인의 힘과 부, 회유에 넘어가 지배에 협조했으나, 일부 이슬람 왕국은 300여 년간 스페인과 긴 전쟁을 이어나갔다. 1896년에는 호세 리잘을 중심으로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카티푸난’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스페인은 이를 철저히 탄압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자, 무장투쟁을 이어가던 에밀리오 아귀날도는 필리핀 독립을 선언하고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곧바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1935년에는 필리핀 자치령을 선포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한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함께 필리핀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이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고 일본의 항복 선언 이후 필리핀자치령은 1946년 7월 4일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제3공화국을 수립한다.

타워빌 지역의 개발협력 사례를 통해 바라본

사단법인 캠프의
지속가능성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_ 서호연

사단법인 캠프와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가 함께하는 대전 학생네트워크 글로벌협력 프로젝트는 IDC 연합동아리에서 시작했다. IDC 연합동아리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둔 대전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다. KOICA 특강, 유네스코 견학, NGO 특강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동아리 참여자 중 SDGs 목표별로 진행한 조별 프로젝트와 영어 성적을 합쳐서 선발한 인원이 필리핀으로 필드트립을 떠나게 되었다.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바탕으로 필드트립을 떠나기 전에 캠프가 필리핀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업을 조사했다. 필리핀은 국가의 빈곤 감축 역량이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캠프는 사회적 경제방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빈곤 감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캠프의 주요 사업인 타워빌 지역의 익팅 사업, 딸락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어쩌면 캠프라는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필드트립 전, 사전교육에서 캠프의 조부영 지부장님은 ‘캠프 아시아’(CAMP Asia, 이하 캠프)의 역사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캠프는 필리핀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7년 3월에 마닐라 시내의 대표적인 빈민촌인 바세코 지역에 설립했다. 2009년까지는 주로 한국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후원받아, 당시 빈민촌의 시급한 문제였던 임신부 출산 지원 시설(의료시설)을 설립하고,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교실이나 유치원을 건축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빈

민촌 주민들이 강제 철거 등으로 타워빌 지역으로 이주하자, 사업 대상지를 타워빌로 이전하였다. 타워빌로 사업 대상지를 옮겼지만,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10년 4월에 캠프와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가 공동으로 타워빌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사업에 변화를 준다.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드트립 2~4일 차 저녁에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교육에서 캠프의 이철용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 조사에는 빈곤 문제, 지역 개발, 적정 기술, 사회적 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주일간 참여하였다. 타워빌의 현황, 지역개발 여건, 현지 주민간담회, 현지 NGO 단체 간담회, 현지 전문가 면담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지 조사에 이어 캠프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자체적으로 타워빌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석 달간 진행한 현지 조사를 통해 캠프는 지역민들의 상황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상당수 가정의 남편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마닐라에 머물면서 구걸이나 일용직 노동을 하였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생활하다가 돌아왔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다. 생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마닐라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동거하는 경우가 잦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남은 여성 혼자서 평균 4~5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여성 가정이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았다.

조사 결과를 두고 이철용 대표님은 현지 NGO 단체들과 기존에 진행해 오던 단기적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철용 대표님은 한국 전문가, 필리핀 조사단과 함께 현지에 맞는 사회적 기업 아이템 선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아이템이 나왔고, 사업 결정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기로 약속했다. 첫째, 지역 주

민에게 설명하여 지역 주민이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에서 이미 사업하는 업종과는 중복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조영은 간사님은 캠프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했다고 말씀해주셨다. 필리핀은 주민자치조직이 상당히 발달했다. 그중 하나가 ‘HOA(Home Owner Association)’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 마을 공동의 일을 결정한다. 캠프는 HOA를 이용해서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빈곤 퇴치 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였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식도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타워빌 사회적 기업의 아이템으로 봉제를 결정했다.

익팅의 초대 회장, 에블린 나나이는 타워빌 사업의 아이템으로 봉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필리핀에는 유치원부터 대학, 그리고 직장인까지 유니폼을 입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타워빌 안에 있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입는 교복을 생산한다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에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채택 배경과는 다르게 사업 초기 유니폼은 잘 팔리지 않았다. 좋은 품질이었지만,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팅에서 일하시는 나나이들과 캠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덕분에 상품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11년간 익팅에서 일

한 에블린 나나이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슬프고 우울하다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찾았고, 직업을 갖고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타워빌 봉제센터는 현지 전문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2011년 10월, 필리핀 국립대학(U.P)의 교수님들이 봉제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협력 주체인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반 학생들은 정규 커리큘럼의 하나로 현장학습이 있다. 6개월간 현지에서 숙식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보고했다. 지도 교수는 학생들이 전달한 내용을 참고하여 봉제센터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향후 봉제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필드트립에서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들과 소통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현장을 소개하며 그들의 원칙, 규칙, 소감 등을 공유했다. 타워빌은 강제 이주 지역이다. 주변 시설은 낙후했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6개월간 현지를 이해하고 지역의 자립을 위해 힘쓴 그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이 생겼다.

캠프의 타워빌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개발 협력 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 및 다른 단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회적 기업 운영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모든 분야에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품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 등 전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니라 지역주민 가운데 경험자를 선발하고 추가적인 기술 교육으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제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판매도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였다. 지역에서 필요한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캠프와 함께한 필드트립을 통해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첫 번째는 캠프의 리더십이다. 캠프의 이철용 대표님은 사업 초기 종교적 신념으로 임했지만, 종교적 목적을 앞세워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외부 자원과 지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다. 주민주도 방식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대표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있다. 첫째, 'From community',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With community',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 셋째, 'For community', 이 사업의 목적이 정말 지역공동체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두 번째는 익팅 봉제센터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리더십이었다. 초대 회장부터 현 회장까지 많은 나나이가 외부 방문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나중에 간사님을 통해 나나이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에티 나나이는 커뮤니티 대표를 맡으면서 대중 앞에서 연설도 하고, 손님에게 타워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자기 변화를 자신 있게 발표한

다고 말씀하셨다. 익팅에서 일하시는 나나이들 모두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익팅 봉제센터 내부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봉제센터의 생산과정 관리책임은 크게 감독과 라인 리더로 나눈다. 감독은 봉제센터에 들어오는 작업을 마케팅팀으로부터 전달받아, 샘플, 재단, 봉제, 마무리, 품질관리 등 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각 부분 리더에게 역할과 기한을 전달한다.

필요하면, 새로운 제품에 필요한 기술을 라인 리더들에게 가르친다. 라인 리더는 작업 내용이나 필요한 기술을 재봉 담당에게 전달하고,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 기업 내부에 협력적 책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책임성은 앞으로 외부 지원이 없어도 사회적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

타워빌은 철거민과 이재민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이 지역에서 빈곤퇴치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캠프는 역량개발이라는 목표를 적절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캠프의 지속가능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의 자원과 욕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고 주민 참여도 끌어냈다. 사회적 기업이 학습공동체로 구실도 했고 이로 인해 지식

공유와 전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타워빌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가치 확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다.

자치적 운영과 작업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은 타워빌 지역과 사회적 기업 익팅, 캠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필리핀 대전 학생 네트워크 글로벌협력 프로젝트 / 활동소감

이런
런트 경험의 소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_ 백민경

다음은 이번 필리핀 대전 학생 네트워크 글로벌협력 프로젝트 다녀온 12명의 소감입니다.

강민서 _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활동할 기회가 올 줄은 몰랐기에 더욱더 뜻깊었다. 사실, 필드트립을 가기 전까지 국제개발 분야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기에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매우 막연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경험하며 국제개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힘쓰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나 싶었다. 이 깨달음은 필리핀에서 알찬 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



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고 이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던 일주일, 함께 한 모든 인연과의 소중한 경험은 나의 기억 한쪽에 자리 잡고 오래오래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김소정 _

IDC 동아리 활동부터 필리핀 글로벌협력 프로젝트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뿌듯하다.

국제개발협력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은 고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은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이번 활동을 마칠 때 얻고 싶은 것은 크게 2가지였다.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 국제개발협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얻었다고 물어본다면, 얻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오히려 소중한 인연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지식 등 과분할 정도



로 많은 것을 얻었다.

다양한 목적과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값진 시간이었다.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게 신경 써 주신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 선생님들도 감사하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사단법인 캠프 관계자분들도 고맙다. 문화교류활동을 함께한 산후안초등학교 학생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친구들 모두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진솔 _

이번 5박 7일간 필리핀 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단연 산후안 초등학교 교육봉사이다. 필리핀 출발 전에도 열심히 준비한 활동이고, 우리가 준비한 활동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환호해 주어서 뿌듯했다. 아이들의 환호성에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한 필리핀에서 한국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놀이를 소개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 시간이



후루룩 가버려서 아쉬웠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힘찬 목소리, 밝은 에너지는 나에게 단순히 언어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봉사하면서 나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더 알차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교육봉사를 꾸리고 싶다.

서호연 _

필리핀 필드트립 전 이수한 사전 교육에서 사단법인 캠프의 2021년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PDM 작성법을 실습했다. 필리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시정 접근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필리핀 빈곤층의 3/4이 농촌 지역에 거주했기에, 필리핀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은 사단법인 캠프의 주요 과제였다. 사단법인 캠프는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사회적 기업의 수익 환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나는 제안서를 통해 사단법인 캠프의 딸락 사업을 이해하고 미션 정의, 문제나무 작성 실습, 목표나무 작성 실습, PDM 작성을 진행하며 사업 관련 자료도 추가로 조사했다. 이런 이유로 필드트립 전 캠프에서 진행하는 딸락 사업에 가장 큰 호기심을 가졌다. 필드트립 중 딸락 지역에서의 농업 봉사활동은 쌀알 골라내기, 쌀겨를 이용한 거름 만들기, 쌀과 흑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미생물 만들기가 있었다. 3가지 활동 모두 친환경 농업을 통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딸락



의 자립농장에서 직접 농사짓는 농부께서 처음에는 농법을 바꾸기가 두려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구조를 한 번에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사단법인 캠프에서 진행하는 농업 가치사슬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사단법인 캠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필리핀의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다.

배근영 _

‘왜 국제개발협력이 하고 싶으세요?’라고 누군가 내게 물을 때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건 스스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서 글로벌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이유를 찾고 싶었다. 버스를 타고 필리핀 지역을 이동할 때면 창가에 보이는 풍경은 시시각각 크게 달라졌다. 불빛이 반짝이는 대도시에서 빈민촌, 농촌 지역까지 바뀌는 환경에 같은 국가가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타워빌 마을을 라운딩하고 가정방문을 했을 때, 창문 대신 천으로 가린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비싼 전기세로 낮에는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없이 가족 네 명이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밝게 인사하는 주민께 오히려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 이런 곳에 캠프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재난으로 인해 타워빌로 강제 이주한, 가족을 잃은 여성 가장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익팅을 만들었다. 이후 딸락의 농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네이처링크를 설립했다.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도시와 농촌 간 연결 체계를 지원하여 소득을 높였다. 캠프는 지역 주민이 소득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현지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빈곤 지역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곳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싶다.

글로벌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같은 분야에 관심을 둔 사람들과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프로젝트를 인솔해 주시고 도움 주신 사회공헌센터와 캠프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산후안 초등학교 봉사활동 때 미숙한 진행에도 차분히 귀 기울여주고 아이들 팔찌를 만드는 동안 내 것을 완성하지 못할까 봐 기다려준 아이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타워빌의 나나이분들과 지역 주민을 생각하면서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시원 _

이번 기회에 개발협력 활동의 의미를 몸소 느끼고 올 수 있었다. “총 7개 사업에 약 133억 원 지원”, “소득 70% 증대”, “병원 설립”. 필리핀에 가기 전 IDC사업을 조사하면서 봤던 단어들이다.

어떤 사업의 결과를 논할 때,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결과를 평가할 때 대부분 자료가 양적인 지표를 사용한다. 하지만 직접 필리핀에서



확정한 사단법인 캠프의 사업은 결코 숫자로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익팅은 아픈 기억을 치유했고, 회복을 넘어선 더 나은 내일을 희망했으며,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온 나나이와 캠프 단원의 눈에는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타워빌의 거리에는 높고 화려한 건물이 즐비하지도, 식탁 위에 비싼 음식이 가득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값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사업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수치를 높이고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 이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참된 ‘개발’, ‘발전’, ‘성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 나은 나와 이웃의 미래를 꿈꾸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것을 이뤄나가는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주신 타워빌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신 충남대 사회공헌센터와 캠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승연 _

대학생이면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진로 고민의 시기가 찾아왔다. 흔히들 대2병이라고 그런다. 국제학을 전공하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반, 국제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다. 현장을 보기 전까지 후자는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수혜국에 가 사람들을 도우며 몸과 마음이 다칠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캠프 관계자분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고 캠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역시 밝게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들은 아무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익팅 봉제센터에서 일하는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



전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잃은 이야기를 들을 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음이 아팠다.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다. 함께 게임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어머니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으라면 ‘익팅 가정 방문’이다. 원래 익팅에 소속된 어머니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한 집은 골목에 위치했는데, 골목마다 목줄 없는 개가 계속 짖어 무서웠다. 집 내부도 충격적이었다. 내 방보다 좁은 곳에 여러 명이 모여 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12살의 여자아이와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도 함께 살았다. 바닥은 맨바닥이었지만 신발을 벗고 다녔고, 방 안쪽은 비닐로 구분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필품을 드렸다. 그들이 좀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이경화 _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캠프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받았다. 익팅에서 시작해서 딸락 지역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올라까지, 이 기업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한국인이 바다 건너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다니! 이철용 대표님께서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봉제, 농사, 경영, 마케팅, 판매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시며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대단하다고 느꼈다. 캠프라는 기관이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



업의 목적과 그 영향력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사회적 반시설도 없는 타워빌에 익팅이라는 기업을 세우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갈 방법을 만들었다. 한 마을이 살아난, 선한 영향력을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글로벌협력 활동은 타워빌에 방문했던 날이다. 익팅 아주머니들이 실제로 살고 계신 집에 찾아갔다. 타워빌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내게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세 가정의 방문을 마

친 뒤 돌아가는 길에 나나이 멜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걸었던 시간이 너무나 따스했기 때문이다. 나는 따갈로그어를 할 줄 몰랐기에 영어를 섞어가며 바디랭귀지를 통해 소통했다. 멜은 가족 이야기, 타워빌과 익팅의 생활에 관해 말해 주었다. 나 또한 내 가족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마간다 리~.”라며 계속해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무슨 뜻인지 여쭙더니 따갈로그어로 ‘pretty’라는 뜻이라며 답해 주었다. 하하. 어느 순간 나나이 멜과 나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걷고 있을 정도로 가까워



졌다. 마음 같아선 타워빌에 한 달 정도는 더 머물며 나나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이지인 _

수혜국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였다. 5박 7일간 필리핀에서 실제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한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유익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웃음은 일상으로 돌아온 나에게 지속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다영 _

되돌아보면 많은 일을 했다. IDC 연합 동아리에 지원하고, SDGs 목표에 따라 조를 나누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필드트립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고, 필드트립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모든 순간이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진로에 확신을 주게 했던 시간이었다.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두는 또래 친구들이 가진 생각을 듣고 이미 그 분야에서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귀 기울였다. 내 생각과 경험에 확신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깊이 깨달았다. 이번 필드트립을 계기로 20대의 한 챕터를 끝마치고, 새로운 챕터를 향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값진

경험과 귀한 인연을 만들어 준 사회공헌센터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원정 _

5박 7일. 무언가를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캠프와 동행하고 사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다.

장기적인 발전이 일시적 원조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익팅의 나나이들은 지역 내에서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하셨다. 가정 방문 시간에 한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니는 100페소가(한화 2,500원) 없어서 병원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갈 수 없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집을 나오면서 나는 우진 간사님께 “저 어머니는 왜 익팅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우진 간사님께서 “그 어머니께서는 익팅의 일원이



었지만, 중도 이탈을 반복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숙련된 익팅의 어머니들은 하루 일급이 350페소(한화 8,750원)이다. 그 어머니께서 단기적인 원조를 바라지 않고 계속 익팅에서 일하여 봉제센터의 나나이로 성장하였다면, 그녀는 아들을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단기적인 원조를 바라는 것과 장기적인 과정을 견디지 못하여 이탈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장기적인 원조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성장시키는 것은 솔한 NGO, 국제기구, 국제기관 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이번 기회로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몇 개월 후엔 외국에서, 지금 배운 것을 양분 삼아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백민경 _

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단순히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였다. 불평등한 사회를 보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했던 나는, 조금씩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러다 좋은 기회를 얻어 필리핀 대전 학생 네트워크 글로벌협력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적어 보자면, 타워빌 가정 방문과 교육 봉사다. 사진으로만 보던 현장을 직접 가서 둘러보고 이웃 주민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울컥했던 순간이 많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매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겐 당연하지 않았다. 전기가 없는 것이 당연한 삶,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을 보면서 내 삶을 반성했다. 낮엔 타워빌을,

밤에는 화려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빈부격차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실컷 쇼핑하고 나오는 길, 물건을 팔고 있는 7살 아이를 만났다. 신발도 신지 않고 경찰의 눈을 피해 물건을 파는 소년을 보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난 20페소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익팅 사례를 통해 그들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ODA라고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지만, 그 발전으로 얻어낸 편리함과 이득은 모두가 누리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나 기술이 더 발전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이나마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직 이 세상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교육 봉사를 하면서 마주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해맑은 미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해 주러 갔지만 오히려 내가 아이들한테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다. 행복해하



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였고, 익숙함에 속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협력프로젝트
PHOTO in the BOOK

우리들의 활동, 책 속 사진전
지금 방들 시작합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_ 김소정

사진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놓친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B컷 즉, 다른 글에 담기지 못했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하시고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 속에서 열리는 사진전, PHOTO in the BOOK의 사진을 보며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생각일 수도 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준비된 사진전 테마는 5개입니다. <Theme 1. 준비>부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heme 1. 준비

글로벌협력프로젝트 필리핀 필드트립을 떠나기 전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PDM 교육을 받고 실습했습니다. 12월 26일과 27일 2일 동안 글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1월 6일 현지(필리핀)문화와이해 교육, 1월 10일과 12일 현지(필리핀)조사방법론 교육을 끝으로 사전교육과정은 끝났습니다. 조별로 산후안초등학교 문화교류활동 준비, 개별 발표 준비까지 쉴 새 없이 지나간 시간도 있었습니다.



Theme 2. 활동 B컷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혹은 활동이 시작되기 전 설렘과 긴장이 느껴지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별하는 순간의 사진은요? 우리는 활동하는 동안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저희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주신 모든 분 덕분에 활동 B컷이 탄생했습니다.

‘집중하다’ 사전적 정의: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교육봉사 가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익팅백팩심총사

길 건널 타이밍



조부영 지부장님 학교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앞 포토존



▶▶ 쉬는시간, UP친구들과 친목도모



▶ 캠프달락지부 간이화장실



***KOICA 필리핀 사무소**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도 부르며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46개국에 KOICA 해외사무소가 있고 필리핀도 46개국 중 하나다. KOICA 필리핀 사무소는 1994년 필리핀 마닐라 타구이그시티에 자리를 잡았으며 국별프로젝트, 민관협력프로젝트,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글로벌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일을 수행한다.

국별프로젝트 사업은 환경, 교통, 어업, 보건, 수자원 및 공공행정, 농업, 교육, 인도적지원, 긴급구호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재건사업, 재해경감을 위한 조기에보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22개 사업이 국별프로젝트로 진행중이다. 민관협력프로젝트는 KOICA가 민간기관, 지역

주민, 비영리기관과 공동목표 실현을 목표로 협력하며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KOICA 필리핀 사무소와 사단법인 캠프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캠프와 함께한 사업은 민관협력프로젝트 중에서도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사무소 벽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로 KOICA 필리핀 사무소 임무를 적었다.

<OUR MISSION>
 To support the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through meaningful partnerships with the Filipino people.

Theme3. 먹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행복

시간되면 나오는 밥, 간식에 배는 비어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식 조식으로 유명한 것이 ‘beef tapa’, ‘tocino’입니다. 갈릭밥과 고기, 달걀 후라이로 이루어진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높아 필리핀 고기 음식은 대체로 굉장히 짭니다. 성인병이 필리핀에서 성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졸리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리핀의 대표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버스를 타고 수없이 만난 졸리비를 저희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 튀김은 필리핀의 대표 간식입니다. 바나나를 으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는 형태를 유지한 채로 튀겨서 만든 음식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식(食)의 순간을 함께하시죠.



Theme 4. 우리가 있었던 그곳, 필리핀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풍경을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꽃길, 백민경



도로 위 농업, 서호연



타워빌마을전경, 이다영



말락캠프건물과 버스가시님



건물



개와 고양이, 백민경



Avenue 표지판



말락농장센스만점

Theme 5.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사회공헌센터 선생님들과 캠프 관계자분들이 신경 써 주셔서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의 순간을 담은 테마입니다. 필리핀 필드트립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IDC 동아리부터 글로벌협력프로젝트까지 저희와 함께한 사회공헌센터의 차현아 담당자님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벌협력프로젝트 PHOTO in the BOOK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공헌센터 권재열 센터장님, 남윤형 팀장님(왼쪽, 중앙), 이진수 선생님(오른쪽)의 사진 ▼



▲ 사단법인 캠프 이철용 대표님, 조부영 지부장님, 조영은 간사님, 김자인 코디님(중앙)의 사진

초판 1쇄 펴낸날 2023년 2월 00일

엮은이 충남대학교

펴낸이 이용원

펴낸곳 월간토마토

디자인 김하림